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ANNA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일을 하기전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 오스왈드 챔버스

We pray when there's nothing else we can do;
Jesus wants us to pray before we do anything at all.

- Oswald Chambers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December 2021, 12월에는

Time 시간 _____

Place 장소 _____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_____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편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열 다섯 번째 편지 FIFTEENTH LETTER

죽음에 임박하여 :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동일하게 그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며,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그가 하시는 일이 달던 쓰던 간에 가리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고통은 절대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라리게 다가온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분은 고통을 덜어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아프게 하시는 그분이 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FATHER)'임을 인식할 때, 우리의 괴로움은 그 쓰라림(bitterness)을 잃게 되고, 심지어 위안(consolation)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임무(employment)는 하나님을 아는 것(to know GOD)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지요. 보통 상대방을 얼마나 아

는지를 가지고 사랑을 측정(the measure of love)한다고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욱 깊고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사랑 역시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위대하다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in pains and pleasures) 똑같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혹은 앞으로 베푸실 어떤 상당한 은혜(sensible favours)에 겨워(그것이 얼마나 높던지 간에), 하나님을 찾거나(seek)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한 은혜는 아무리 크다 한들 단순한 믿음의 행동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그분을 찾지 맙시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불쾌해하실 하찮은 일들(trifles)에 빠진 채 그분을 홀로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버릇없는 사람들이며, 비난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시한 것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겠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그분께 헌신하기를 시작합시다. 그 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몰아냅시다. 그래야 그분 홀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 은총을 간구하세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곧 우리가 열망하던 변화(change)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고통을 완화(relaxation)시켜 주셨다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나는 그분의 자비로 며칠 후면 그분을 뵙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틀 후, 그(로렌스 형제)는 자리에 누웠고,
그 주에 세상을 떠났다.

역자 후기

로렌스(로랭) 형제의 본명은 '니꼴라 에르망(Nicholas Herman)'으로,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수도원에 입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참전했던 30년 전쟁(1618~1648년)에서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고초를 겪었다. 퇴역 후에는 절름거리는 다리로 인해 심부름꾼으로나 일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후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간 그는, 새로 '부활의 로렌스(Lawrence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로랭)'라는 수사명을 얻었다.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 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이었다.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파리 대주교(Archbishop of Paris) 소속, 주교 대리 법무관(vicar general)이 된 보포르 신부(Father Joseph de Beaufort)도 있었다.

이 책은 로렌스 형제 사후, 보포르 신부가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책으로 낸 것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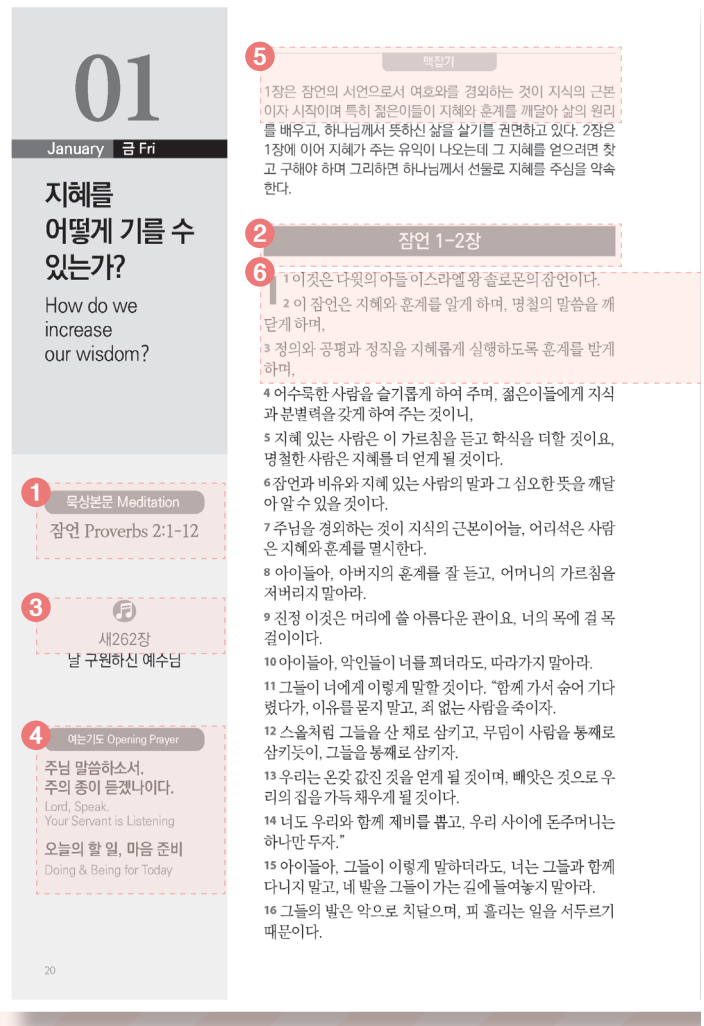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2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3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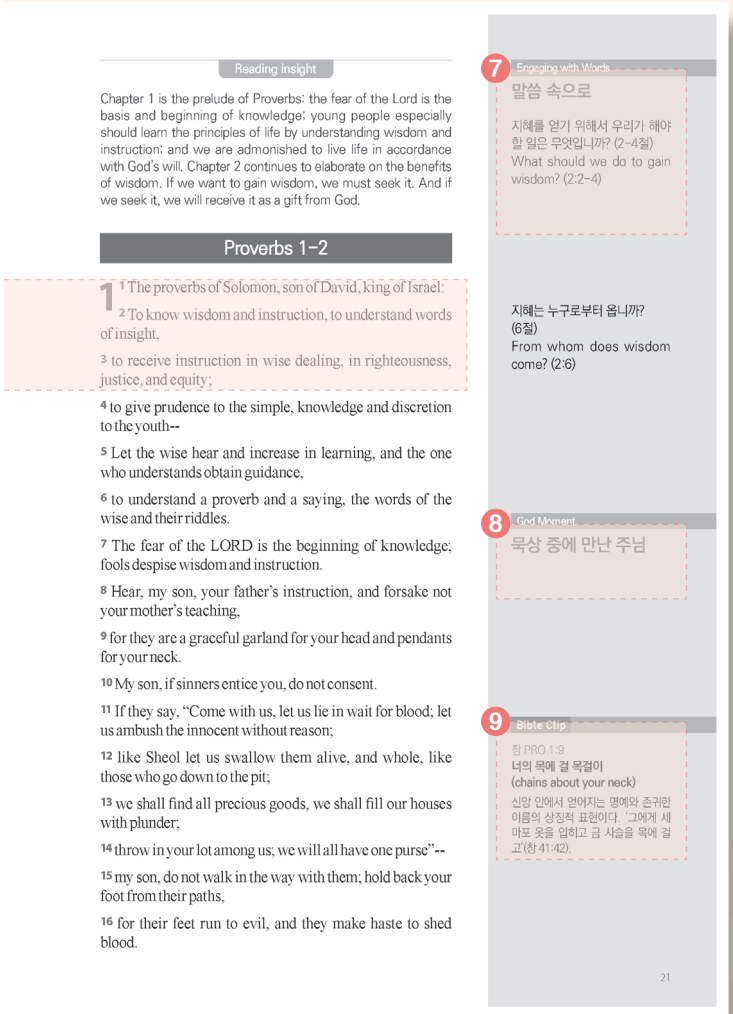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1
January 금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1 묵상본문 Meditation
잠언 Proverbs 2:1-12
3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0
5 맥잡기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삶의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2장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한다.
2 잠언 1-2장
6
1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2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4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5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6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7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8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9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10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11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12 스올처럼 그들을 산 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13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배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14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15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네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16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달으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본문길라잡이(BibleClip) 2,000개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1-2

1 1 The proverbs of Solomon, son of David, king of Israel:
2 To know wisdom and instruction, to understand words of insight,
3 to receive instruction in wise dealing, in righteousness, justice, and equity;
4 to give prudence to the simple, knowledge and discretion to the youth--
5 Let the wise hear and increase in learning, and the one who understands obtain guidance,
6 to understand a proverb and a saying, the words of the wise and their riddles.
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8 Hear, my son, your father's instruction, and forsake not your mother's teaching,
9 for they are a graceful garland for your head and pendants for your neck.
10 My son, if sinners entice you, do not consent.
11 If they say, "Come with us, let us lie in wait for blood; let us ambush the innocent without reason;
12 like Sheol let us swallow them alive, and whole, like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13 we shall find all precious goods, we shall fill our houses with plunder;
14 throw in your lot among us; we will all have one purse"--
15 my son, do not walk in the way with them; hold back your foot from their paths,
16 for their feet run to evil, and they make haste to shed blood.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9 Bible Clip
잠 PRO 1:9
너의 목에 걸 목걸이
(chains about your neck)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명예와 존귀한 이름의 상징적 표현이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창 41:42).

21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새번역)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9 본문길라잡이(Bible Clip)
성경을 읽는 데 방해되는 어려운 단어를 풀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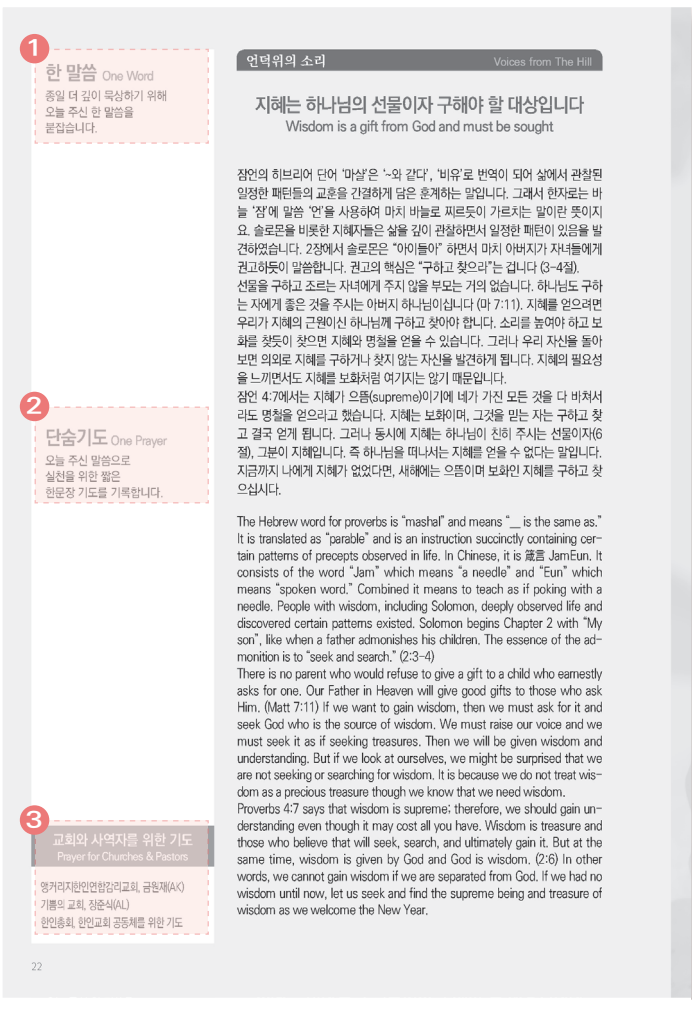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❶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❷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❸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본문길라잡이(BibleClip) 2,000개



❹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❺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❻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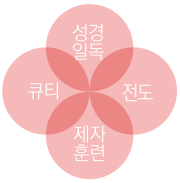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December

12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5	6 누가복음 Luke 6장 ☐	7 누가복음 Luke 7장 ☐
12	13 누가복음 Luke 12장 ☐	14 누가복음 Luke 13장 ☐
19	20 누가복음 Luke 18장 ☐	21 누가복음 Luke 19장 ☐
26	27 누가복음 Luke 20장 ☐	28 누가복음 Luke 21장 ☐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누가복음 Luke 3장 ☐	2 누가복음 Luke 4:1-13 ☐	3 누가복음 Luke 4:14-44 ☐	6 누가복음 Luke 5장 ☐
8 누가복음 Luke 8장 ☐	9 누가복음 Luke 9장 ☐	10 누가복음 Luke 10장 ☐	13 누가복음 Luke 11장 ☐
15 누가복음 Luke 14장 ☐	16 누가복음 Luke 15장 ☐	17 누가복음 Luke 16장 ☐	20 누가복음 Luke 17장 ☐
22 누가복음 Luke 1:1-38 ☐	23 누가복음 Luke 1:39-80 ☐	24 누가복음 Luke 2:1-21 ☐	27 누가복음 Luke 2:22-52 ☐
29 누가복음 Luke 22장 ☐	30 누가복음 Luke 23장 ☐	31 누가복음 Luke 24장 ☐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누가복음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은 신약에 기록된 4개 복음서들 중 가난한 자, 이방인, 세리, 여성 등 종교, 사회적으로 소외 당했던 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불립니다. 또한 예수의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해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수려한 헬라어로 기록돼 문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누가복음이 예수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나 저자의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쓰인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2세기 후반부터 전통적으로 바울의 동료였던 의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직전인 A.D. 60-62년경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됐다고 밝히고 있는 누가복음의 어느 곳에도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익명의 이방인 저자가 예루살렘 멸망 이후인 80년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권의 책인가?

누가복음은 원래 사도행전과 같이 쓰인, 2부작으로 된 연작집의 첫 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두에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데오빌로에 대한 헌정사"입니다(눅 1:1-4, 행 1:1-5).

비록 두 권의 책이 함께 이어진 사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두 책이 본래 한 권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초대 교부들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누가-행전으로 존재했던 한 권의 책이 두 권으로 분리된 이유는 내용상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어울리는 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다루는 내용의 입문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출생-사역-최후로 이어지는 예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서보다 로마서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들과 관련이 있는 사도행전이 별도의 책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24장으로 이뤄진 누가복음과 28장으로 이뤄진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묶였을 경우 총 52장으로 신약성경의 1/4을 차지할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전진하는 복음의 운동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다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향적 운동성"을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단히 움직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부활 이후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를 향하여 부단히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두 권의 책 안에서 복음의 운동, 복음의 진행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는 누가복음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었습니다(4:43). 그 내용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그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은혜의 다스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의 대상은 이사야의 예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입니다.

누가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죄인에게 복음을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중에 세리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여인들도 자주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아무런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과부에 대한 관심도 역시 두드러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도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관심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 전혀 예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죄책감에 짓눌린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는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는 허위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한에서만 복음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의 목적은 죄인을 찾아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선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의 비밀?

성령과 기도

누가복음이 관심 갖고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의 비밀은 "성령"과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고(1:35), 성령의 세례(3:22)를 기점으로 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광야 시험을 인도하였고(4:1),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증언 활동을 하였습니다(4:14). 권세 있는 사역의 원천도, 지혜 있는 가르침의 원천도 모두 성령이었음을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공적인 증언활동을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3:21; 5:16; 6:12; 9:18, 28-29, 10:21; 11:1; 22:32, 41-45; 23:34, 46). 모두 중요한 순간들 입니다.

그렇기에 누가복음에서 교회, 즉 예수님의 공동체는 당연히 "증인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때, 예수의 증인 공동체는 땅끝까지 찾아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해설성경(대한기독교서회)

Luke Johnson, The Writings of the New Testament(Fortress Press)

신양공동체를 위한 신약성서 이해(성서연구사)

뉴 인터프리터 스터디 바이블(Abingdon Press)

01

December 수 Wed

주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3:1-6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의 출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실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세례 요한의 출현(1-6절); (2) 세례 요한의 사역(7-20절); (3)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21-22절); (4)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23-38절).

누가복음 3장

1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
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
네를 다스리고,

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
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3 요한은 요단 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4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5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6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7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
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고 일러주더냐?

8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9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
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10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
니까?"

Reading insight

Luke 3 introduces John the Baptist as the prophet ahead of Jesus Christ and the new era led by Jesus Christ. This chapter consists of four sections: (1) the appearance of John the Baptist (3:1–6); (2)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3:7–20); (3) the baptism of Jesus Christ (3:21–22); and (4) the lineage of Jesus Christ (3:23–38).

Luke 3

1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Pontius Pilate being governor of Judea, and Herod being tetrarch of Galilee, and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the region of Ituraea and Trachonitis,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2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and Caiapha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echariah in the wilderness.

3 And he went into all the region around the Jordan, proclaim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4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Isaiah the prophet,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5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made low, and the crooked shall become straight, and the rough places shall become level ways,

6 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7 He said therefore to the crowds that came out to be baptized by him, "You brood of vipers!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8 Bear fruits in keeping with repentance.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 For I tell you, God is able from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for Abraham.

9 Even now the axe is laid to the root of the trees. Every tree therefor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10 And the crowds asked him, "What then shall we do?"

Bible Clip

눅 LUK 3:1

분봉왕 (tetrarch, 分封王)

황제에게서 땅을 분배 받아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봉해진 왕을 가리킨다. 당시 로마 통치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버지 헤롯 대왕을 이어 아들 헤롯왕을 포함해서 3명의 분봉왕이 있었다.

눅 LUK 3:8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본문 10–14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 그것이다. 성도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의 곤경과 권리에 주의하고 자기 희생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눅 3:8)

Memo

11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3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14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
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
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15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 속
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
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
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
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17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
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에 태우실 것이오."

18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9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
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
을 받았고,

20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
둔 것이다.

21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
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
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23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서른 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
리의 아들이요,

24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맛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11 And he answered them, “Whoever has two tunics is to
share with him who has none, and whoever has food is to do
likewise.”

12 Tax collectors also came to be baptized and said to him,
“Teacher, what shall we do?”

13 And he said to them, “Collect no more than you are autho-
rized to do.”

14 Soldiers also asked him, “And we, what shall we do?”
And he said to them, “Do not extort money from anyone by
threats or by false accusation, and be content with your
wages.”

15 As the people were in expectation, and all were question-
ing in their hearts concerning John, whether he might be the
Christ,

16 John answered them all, saying, “I baptize you with wa-
ter, but he who is mightier than I is coming, the strap of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17 His winnowing fork is in his hand, to clear his threshing
floor and to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18 So with many other exhortations he preached good news
to the people.

19 But Herod the tetrarch, who had been reproved by him for
Herodias, his brother’s wife, and for all the evil things that
Herod had done,

20 added this to them all, that he locked up John in prison.

21 Now when all the people were baptized, and when Jesus
also had been baptized and was praying, the heavens were
opened,

22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23 Jesus, when he began his ministry, was about thirty years
of age, being the son (as was supposed) of Joseph, the son of
Heli,

24 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the son of Melchi, the
son of Jannai, the son of Joseph,

Memo

Memo

25맛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낙개,

26마앗, 맛다디아, 세메인, 요섹, 요다,

27요아난, 레사, 스룹바벨, 스알디엘, 네리,

28멜기, 앗디, 고삼, 엘마담, 에르,

29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맛닷, 레위,

30시므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야김,

31멜레아, 멘나, 맛다다, 나단, 다윗,

32이새,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33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34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35스룩, 르우, 벨렉, 에벨, 살라,

36가이난, 아박삿, 셈, 노아, 레멕,

37므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38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25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Amos, the son of Nahum, the son of Esli, the son of Naggai,

26 the son of Maath, the son of Mattathias, the son of Semein, the son of Josech, the son of Joda,

27 the son of Joanan, the son of Rhesa, the son of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the son of Neri,

28 the son of Melchi, the son of Addi, the son of Cosam, the son of Elmadam, the son of Er,

29 the son of Joshua, the son of Eliezer, the son of Jorim, the son of Matthat, the son of Levi,

30 the son of Simeon, the son of Judah, the son of Joseph, the son of Jonam, the son of Eliakim,

31 the son of Melea, the son of Menna, the son of Mattatha, the son of Nathan, the son of David,

32 the son of Jesse, the son of Obed, the son of Boaz, the son of Sala, the son of Nahshon,

33 the son of Amminadab, the son of Admin, the son of Arni, the son of Hezron, the son of Perez, the son of Judah,

34 the son of Jacob, the son of Isaac, the son of Abraham, the son of Terah, the son of Nahor,

35 the son of Serug, the son of Reu, the son of Peleg, the son of Eber, the son of Shelah,

36 the son of Cainan, the son of Arphaxad, the son of Shem, the son of Noah, the son of Lamech,

37 the son of Methuselah, the son of Enoch, the son of Jared, the son of Mahalaleel, the son of Cainan,

38 the son of Enos,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로마의 디베료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의 총독과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재직했던 자들은 각각 누구입니까? (1절)
During the reign of Roman emperor Tiberius, who was the governor of Judah and the tetrarch of Galilee? (3:1)

누가복음서 기자는 요한이 전파한 세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How did the author of the Book of Luke describe the baptism that John had ministered? (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새 시대, 새 마음
New Era, New Heart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출현과 사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길이 예비되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을 보았습니다(사 40:3-5). 이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으로써, 세례 요한은 유대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사건과 맞닥뜨릴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가실 새로운 시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사건의 주역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새 시대에 합당한 새 마음을 갖는 일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으로써, 우선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파한 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환대를 베풀며, 거짓을 멈추는 것입니다(눅 3:11-14).

Prophet Isaiah prophesied a long time ago about the appearance and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and called it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Isaiah saw such a way prepared for the LORD as each valley was filled in,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crooked roads became straight, and the rough ways smooth (Isa 40:3-5). This event was as if the sky opened and the ground was torn apart. John the Baptist proclaimed to the people of Judah to be prepared thoroughly to experience this enormous event which was directly related to the new era being opened by Jesus Christ.
In order to receive a new era, more than anything, we need to have a new mind. Of course, the protagonist of the event was not John the Baptist but Jesus Christ. In other words, only Jesus Christ could open a new era. Then what we need to do is to have a new mind fit for a new era, that is, to have resolve for a new life. As a first step, we not only need to thoroughly repent our sins but also we need to produce good fruits of our repentance. As proclaimed by John the Baptist, we need to actively do good works, exercise hospitality, and stop lying (Luke 3:11-14).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2

December 목 Thu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

Jesus tempted by the devil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4:1-12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Jesus' sonship)에 대한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할 수 있었고,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에 대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모든 위험을 충분히 물리치고 방호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선언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누가복음 4:1-13

1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2 사십 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3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4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5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6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7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8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9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10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11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12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13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Reading insight

Three temptations by the devil were to test Jesus' Sonship of God. As the Son of God, Jesus was able to supply all the material needs of the people, and as the king of the kings he could have exercised his power over all nations. He had enough power to protect himself by fending off all dangers. By proclaiming that those powers belong to only God, Jesus fended off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Luke 4:1–13

1 And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2 for forty days, being tempted by the devil. And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when they were ended, he was hungry.

3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is stone to become bread."

4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5 And the devil took him up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in a moment of time,

6 and said to him, "To you I will give all this authority and their glory, for it has been delivered to me, and I give it to whom I will.

7 If you, then, will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8 And Jesus answered him,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shall you serve.'"

9 And he took him to Jerusalem and set him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10 for it is written,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11 and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12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said,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13 And when the devil had ended every temptation, he departed from him until an opportune ti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귀가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을 향해 첫 번째로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What was the devil's first temptation of Jesus who had fasted for forty days in the desert? (4:3)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9–11절)
What was the devil's temptation of Jesus at the top of the temple in Jerusalem? (4:9–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차차 마귀
The Devil called "Cha Cha"

마귀의 시험(유혹, temptation)은 끈질긴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 후,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13절). 이 구절은 마귀가 언제라도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 사부자(四父子)가 신자들을 미혹할 방법을 토의했습니다. 큰아들 마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는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면 어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마귀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마귀가 "그것도 안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찌 아니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셋째 아들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것을 천천히 믿겠다고 하도록 미혹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 마귀와 나머지 두 형제 마귀가 다 찬성하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일을 천천히 하라고 유혹하는 '차차 마귀'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Perseverance is a characteristic of the devil's temptations. The devil who tested Jesus did not stop after the first temptation but tried a second and third time. Even then, the devil did not retreat completely.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4:13). This phrase reveals that the devil could reappear any time to test Jesus again.
One day, the father and three sons of the devil family discussed ways to tempt believers. The oldest devil son first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no God in the world." But the father devil challenged him by saying, "That will not work.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God when there is God?" Then the second oldest devil son said, "Let us claim that Jesus is not the son of God." Then the father devil challenged again, "That will not work either. Jesus is clearly the son of God, how can we deny that?" At last, the third devil son suggested, "Let us claim that there is God and Jesus is the Son of God but let us tempt them to believe those truths slowly." Then the father devil and the other two devil sons agreed and declared it to the world. The devils can now be named "Slow-Slow-devil" because they tempt believers to believe Jesus slow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3

December 금 Fri

예수님의 첫 설교

The first sermon of Jesu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4:16-24

새96장(통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와 그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14-30절),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31-37절), 그리고 베드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과 더불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38-41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다.

누가복음 4:14-44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15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16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17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18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19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20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22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23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24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the first sermon of Jesus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and the reaction of the people(4:30).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story of a man possessed by a demon being healed when Jesus was preaching at the synagogue in Capernaum(4:31-37). The third part is about healing Simon Peter's mother-in-law's high fever and the sickness of many other people(4:38-41). Proclaiming the Word of God, teaching, and healing sick people were the primary ministries of Jesus.

Luke 4:14-44

14 And Jesus return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to Galilee,
and a report about him went out through all the surrounding
country.

15 And he taught in their synagogues, being glorified by all.

16 And he came to Nazareth, where he had been brought up.
And as was his custom, he went 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and he stood up to read.

17 And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given to him. He
unrolled the scroll and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18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19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20 And he rolled up the scroll and gave it back to the attendant and sat down. And the eyes of all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21 And he began to say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has
been fulfilled in your hearing."

22 And all spoke well of him and marveled at the gracious
words that were coming from his mouth. And they said, "Is
not this Joseph's son?"

23 And he said to them, "Doubtless you will quote to me this
proverb, 'Physician, heal yourself.' What we have heard you
did at Capernaum, do here in your hometown as well."

24 And he said, "Truly, I say to you, no prophet is acceptable
in his hometown.

Bible Clip

눅 LUK 4:19

은혜의 해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뜻한다(레 25:10).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다시 선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인류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의 희년이 주어졌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영어성경 NIV-the year of the Lord's favor로 표기되어 있다.

Memo

2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
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26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
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
부에게만 보내셨다.

27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환자가 많이 있
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
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28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29 그래서 그들은 들고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
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31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
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32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33 그 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
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34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
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
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3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
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36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
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37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38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
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39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
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
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25 But in truth, I tell you, there were many widows in Israel in the days of Elijah, when the heavens were shut up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a great famine came over all the land,

26 and Elijah was sent to none of them but only to Zarephath, in the land of Sidon, to a woman who was a widow.

27 And there were many lepers in Israel in the time of the prophet Elisha, and none of them was cleansed, but only Naaman the Syrian."

28 When they heard these things, all in the synagogue were filled with wrath.

29 And they rose up and drove him out of the town and brought him to the brow of the hill on which their town was built, so that they could throw him down the cliff.

30 But passing through their midst, he went away.

31 And he went down to Capernaum, a city of Galilee. And he was teaching them on the Sabbath,

32 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is word possessed authority.

33 And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who had the spirit of an unclean demon, and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34 "Ha!What have you to do with us, Jesus of Nazareth? Have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

35 But Jesus rebuked him, saying, "Be silent and come out of him!" And when the demon had thrown him down in their midst, he came out of him, having done him no harm.

36 And they were all amazed and said to one another, "What is this word? For with authority and power he commands the unclean spirits, and they come out!"

37 And reports about him went out into every place in the surrounding region.

38 And he arose and left the synagogue and entered Simon's house. Now Simon's mother-in-law was ill with a high fever, and they appealed to him on her behalf.

39 And he stood over her and rebuked the fever, and it left her, and immediately she rose and began to serve them.

Memo

Memo

40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41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42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43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44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40 Now when the sun was setting, all those who had any who
were sick with various diseases brought them to him, and he
laid his hands on every one of them and healed them.

41 And demons also came out of many, crying, "You are the
Son of God!" But he rebuked them and would not allow
them to speak, because they knew that he was the Christ.

42 And when it was day, he departed and went into a deso-
late place. And the people sought him and came to him, and
would have kept him from leaving them,

43 but he said to them, "I must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to the other towns as well; for I was sent for
this purpose."

44 And he was preaching in the synagogues of Judea.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누구의 글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 읽으셨습니까? (17절)
When Jesus went to the synagogue in Nazareth, what part of the Bible did Jesus read? (4:17)

나사렛 회당에서 행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3-24절)
What did Jesus say after he heard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o had heard his sermon at the synagogue in Nazareth? (4:23-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예수님을 보는 눈
People's insight to recognize Jesus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청중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요셉의 아들로서 그저 자기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평소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 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지 유대민족만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은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인종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Upon hearing Jesus' sermon, the audience was amazed at the gracious words but at the same time sarcastically commented, "Isn't this Joseph's son?" In other words, this comment reveals their prevailing thoughts refusing to treat Jesus as the Son of God but as Joseph's son, just a common man like themselves. People often fail to look at certain people or events with a deeper and wider sense of understanding because of their prejudices or stereotypes. Jesus was the Son of God before he was the son of Josep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Nazareth. Jesus did not come just for the people of Judah either. Jesus came fo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The salvation brought by Jesus was not limited to just a certain region or a certain race. The salvation was universal and ordinary. The people of Nazareth misunderstood Jesus and, as a result, they did not rightly believe Jesus. They ended up driving him out of town and took him to the brow of the hill to throw him down the cliff.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4

December 토 Sat

죄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The Redeemer of sinners,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5:27-32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이야기(1-11절),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12-26절), 그리고 세리 레위(마태로 알려진)를 부르신 이야기와 더불어 혼인 집 손님들과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의 말씀(33-39절)이 나오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새로운 세계를 열어 놓으시고, 그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셨다.

누가복음 5장

1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 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2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뭍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4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7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9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10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뭍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Reading insight

Luke 5 recorded the stories of Jesus first calling the disciples(5:1–11), Jesus healing the leper and paralytic(5:12–26), Jesus calling the tax collector Levi(aka Matthew), and the wedding guests and the parable of new wine(5:33–39). As Jesus opened the new world leading to the Kingdom of God, he called and made disciples to invite them to the new world.

Luke 5

1 On one occasion, while the crowd was pressing in on him
to hear the word of God, he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
nesaret,

2 and he saw two boats by the lake, but the fishermen had
gone out of them and were washing their nets.

3 Getting into one of the boats, which was Simon's, he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the land.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4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5 And Simon answered, "Master, we toiled all night and
took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6 And when they had done this, they enclosed a large num-
ber of fish, and their nets were breaking.

7 They signaled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the boats, so
that they began to sink.

8 But when Simon Peter saw it, he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O Lord."

9 For he and all who were with him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at they had taken,

10 and so also were James and John, sons of Zebedee, who
were partners with Simon. And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ing men."

11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ir boats to land,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Bible Clip

눅 LUK 5:10

사람을 낚을 것이다
(you will catch men)

'살아있는 것을 사로잡는다'는 의미이다. 고기를 잡듯이 이제 복음으로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사람을 낚을 것이다'는 영어성경 NIV-will fish for people로 표기되어 있다.

Memo

12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
이 찾아 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1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
나갔다.

14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
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
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15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
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17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므로, 예수께서
는 병을 고치셨다.

18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19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20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21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
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
각하기 시작하였다.

22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
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23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
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
냐?

24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
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25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
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Bible Clip

눅 LUK 5:17

율법교사 (teachers of the law)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학자. 서기관의 다른 명칭이다(마 2:4, 22:35).

Memo

12 While he was in one of the cities, there came a man full of leprosy. And when he saw Jesus, he fell on his face and begged him, "Lord,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13 And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will; be clean." And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14 And he charged him to tell no one, but "go and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make an offering for your cleansing, as Moses commanded, for a proof to them."

15 But now even more the report about him went abroad, and great crowds gathered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infirmities.

16 But he would withdraw to desolate places and pray.

17 On one of those days, as he was teaching,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were sitting there, who had come from every village of Galilee and Judea and from Jerusalem. And the power of the Lord was with him to heal.

18 And behold, some men were bringing on a bed a man who was paralyzed, and they were seeking to bring him in and lay him before Jesus,

19 but finding no way to bring him in, 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roof and let him down with his bed through the tiles into the midst before Jesus.

20 And when he saw their faith, he said, "Man, your sins are forgiven you."

21 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question, saying, "Who is this who speaks blasphemies?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22 When Jesus perceived their thoughts, he answered them, "Why do you question in your hearts?

23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you,' or to say, 'Rise and walk'?

24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man who was paralyzed--"I say to you, rise,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25 And immediately he rose up before them and picked up what he had been lying on and went home, glorifying God.

Memo

26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27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28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29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
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30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3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
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32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
시키러 왔다."

33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 잔치의 손
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
겠느냐?

35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36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
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
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
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Bible Clip

눅 LUK 5:30

세리 (tax collector, 稅吏)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에 상납하던 관리이다. 세금 이상의 돈을 거두어 착복하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매국노,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26 And amazement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and were filled with awe, saying, “We have seen extraordi-
nary things today.”

27 After this he went out and saw a tax collector named Levi,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28 And leaving everything, he rose and followed him.

29 And Levi made him a great feast in his house, and there
was a large company of tax collectors and others reclining
at table with them.

30 And the Pharisees and their scribes grumbled at his disci-
ples, saying,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31 And Jesus answered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32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
tance.”

33 And they said to him, “The disciples of John fast often
and offer prayers, and so do the disciples of the Pharisees,
but yours eat and drink.”

34 And Jesus said to them, “Can you make wedding guests
fast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35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is taken away
from them, and then they will fast in those days.”

36 He also told them a parable: “No one tears a piece from a
new garment and puts it on an old garment. If he does, he
will tear the new, and the piece from the new will not match
the old.

37 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If he does,
the new wine will burst the skins and it will be spilled, and
the skins will be destroyed.

38 But new wine must be put into fresh wineskins.

39 And no one after drinking old wine desires new, for he
says, ‘The old is go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
When Jesus said “Follow me” to Levi who was sitting at the tax booth, what was Levi’s reaction? (5:28)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omplained to the disciples,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what was Jesus’ response? (5:31-3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I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교회, 의인들의 집합소?
Church, is it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

예수님 당시에 이른 바, 자기-의에 몰입되어 '경건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 모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병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에게는 구원자(의사)가 절실하다 판단하고 자신이 바로 죄인의 구원자로 세상에 왔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32절).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과연 의인들만 모인 곳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불신자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의'에 함몰될 위험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 3:17). 그리스도인들 모두 여전히 죄인입니다. 전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At the time of Jesus, the Pharisees of "bogus godliness" labeled the tax collectors and the prostitutes as "sinners" and treated them as if they had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But Jesus believed that because they were sinners (the sick), they badly needed the redeemer (the doctor) and proclaimed that he himself came to this world as the redeemer of the sinners.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5:32) But then, is the present day church a place of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only? Of course, the followers of Jesus are forgiven of their sins and are the people of righteousness by the grace of God.

From that point of view, a church may be called an assembly of the righteous. However there is a trap to this statement. That is, there is a hidden danger to fall into "self-claimed righteousness" whereas treating outsiders (non-believers) as sinners. For example, the church in Laodicea had fallen into this type of trap.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Rev 3:17) All Christians are still sinners. Christians are not righteous without the need for repentance but are sinners who are forgiven of sins by the grace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5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늘

송종남 목사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매년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교회력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인데,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강절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참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소풍가는 날을 기다리고, 운동회 날을 기다리고 명절날을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뻤던지요. 하나의 기다림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에서 우리는 자랐고, 어른이 되었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기다림은 곧 기쁨이고 소망인데 기다림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슬프고 삭막한지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조차 안 하면서 온통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은 쏙 빼놓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12월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라고 온통 야단들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가까운 곳에 있는 유명한 Garden에는 추수감사절 주간부터 거의 한 달 반 동안 온갖 호화찬란한 전등으로 장식을 해 놓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것을 보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분명히 그것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만든 장식들인데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없고, 그냥 전등으로 불꽃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즐기게 하는 것이 늘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디 그 Garden뿐이겠나 싶습니다. 요즘 사회 풍조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서 5개의 대강절 초를 밝히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5개의 초는 희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둘러보면 지난 한 해, 참 어수선하고 복잡했고 어두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대강절 초를 밝히며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우리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불을 밝힙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언제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기쁘고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06

December 월 Mon

열 두 제자를 택하심

The Twelve Disciples were chose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6:12-19

(복음성가)
나는 비록 약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천명하셨고(1-5절),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6-11절). 그 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신 후, 열두 제자를 택하셨고(12-19절), 평지에서 여러 교훈들을 들려주셨다(20-49절).

누가복음 6장

1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2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5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7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 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10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11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Reading insight

On the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were judging the disciples of Jesus picking the heads of grain and eating, Jesus declared,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bath." (6:1–5). On another Sabbath, to the Pharisees who judged Jesus healing a man with shriveled right hand, Jesus declared,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6:6–11) After that, Jesus went to the mountain and prayed all night, picked twelve disciples (6:12–19) and continued his many teachings in the towns (6:20–49).

Luke 6

1 On a Sabbath, while he was going through the grainfields,
his disciples plucked and ate some heads of grain, rubbing
them in their hands.

2 But some of the Pharisees said, "Why are you doing what
is not lawful to do on the Sabbath?"

3 And Jesus answered them, "Have you not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hungry, he and those who were with him:

4 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took and ate the
bread of the Presence, which is not lawful for any but the
priests to eat, and also gave it to those with him?"

5 And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lord of the Sab-
bath."

6 On another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was
teaching, and a man was there whose right hand was with-
ered.

7 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watched him, to see
whether he would heal on the Sabbath, so that they might
find a reason to accuse him.

8 But he knew their thoughts, and he said to the man with the
withered hand, "Come and stand here." And he rose and
stood there.

9 And Jesus said to them, "I ask you, is it lawful on the Sab-
bath to do good or to do harm, to save life or to destroy it?"

10 And after looking around at them all he said to him,
"Stretch out your hand." And he did so, and his hand was re-
stored.

11 But they were filled with fury and discussed with one an-
other what they might do to Jesus.

Memo

12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13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
는데,

14 열둘은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
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15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
도 하는 시몬과

16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17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
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18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
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19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
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
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21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
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
희가 웃게 될 것이다.

22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
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
이 있다.

23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
하였다.

24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5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
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Bible Clip

눅 LUK 6:15

열심당원 (the Zealot)

헤롯 대왕 당시 조직되어 이스라엘 내에서 로마의 통치를 몰아내고자 결성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다.

12 In these days he went out to the mountain to pray, and all night he continued in prayer to God.

13 And when day came, he called his disciples and chose from them twelve, whom he named apostles:

14 Simon, whom he nam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and James and John, and Philip, and Bartholomew,

15 and Matthew, and Thomas, and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

16 and Judas the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became a traitor.

17 And he came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with a great crowd of his disciples and a great multitude of people from all Judea and Jerusalem and the seacoast of Tyre and Sidon,

18 who came to hear him and to be healed of their diseases. And those who were troubled with unclean spirits were cured.

19 And all the crowd sought to touch him, for power came out from him and healed them all.

20 And he lifted up his eyes on his disciples, and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21 "Blessed are you who are hungry now, for you sha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shall laugh.

22 "Blessed are you when people hate you and when they exclude you and revile you and spurn your name as evil, on account of the Son of Man!

23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for behold, your reward is great in heaven; for so their fathers did to the prophets.

24 "But woe to you who are rich, for you have received your consolation.

25 "Woe to you who are full now, for you shall be hungry. "Woe to you who laugh now, for you shall mourn and weep.

26 "Woe to you, when all people speak well of you, for so their fathers did to the false prophets.

Memo

Memo

27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30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31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33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34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 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36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38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41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27 "But I say to you who hear, Love your enemies,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28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abuse you.

29 To one who strikes you on the cheek, offer the other also,
and from one who takes away your cloak do not withhold
your tunic either.

30 Give to everyone who begs from you, and from one who
takes away your goods do not demand them back.

31 And as you wish that others would do to you, do so to
them.

32 "If you love those who love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love those who love them.

33 And if you do good to those who do good to you, what
benefit is that to you? For even sinners do the same.

34 And if you lend to those from whom you expect to re-
ceive, what credit is that to you? Even sinners lend to sin-
ners, to get back the same amount.

35 But love your enemies, and do good, and lend, expecting
nothing in return, and your reward will be great, and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for he is kind to the ungrate-
ful and the evil.

36 Be merciful, even as your Father is merciful.

37 "Judge not, and you will not be judged; condemn not,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
en;

38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lap.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39 He also told them a parable: "Can a blind man lead a blind
man? Will they not both fall into a pit?

40 A disciple is not above his teacher, but everyone when he
is fully trained will be like his teacher.

41 Why do you see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but
do not notice the log that is in your own eye?

Memo

Memo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
게 '친구야,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 때에 네가 똑똑히 보게 되어
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 더미에서 선
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 더
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46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47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 주겠다.

48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49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
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
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Bible Clip

눅 LUK 6:48

홍수 (flood)

사납고 빠르게 흐르는 물을 의미한다. 사회적 발전이나 사조 따위의 거센 흐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홍수'는 영어성경 NIV-torrent로 표기되어 있다.

42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Brother, let me take out
the speck that is in your eye,’ when you yourself do not see
the log that is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log out of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take
out the speck that is in your brother’s eye.

43 “For no good tree bears bad fruit, nor again does a bad
tree bear good fruit,

44 for each tree is known by its own fruit. For figs are not
gathered from thornbushes, nor are grapes picked from a
bramble bush.

45 The good person out of the good treasure of his heart pro-
duces good, and the evil person out of his evil treasure pro-
duces evil,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his mouth
speaks.

46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not do what I tell
you?

47 Everyon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does
them,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48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the rock. And when a flood arose, the
stream broke against that house and could not shake it, be-
cause it had been well built.

49 But the one who hears and does not do them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When the stream broke against it, immediately it fell, and
the ruin of that house was grea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은 열 두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절)
What did Jesus do before he picked twelve disciples? (6:12)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예수를 파는 자가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16절)
Among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who would later sell Jesus? (6: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인간의 평범함, 하나님의 비범함
Ordinary Man, Extraordinary God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레위(마태)는 주변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인 세리였으며 빌립, 바돌로매, 도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는 특출나게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가 사도의 반열에 세워집니다. 행 1:26).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 지도자들이라 불린 그룹(서기관, 제사장, 장로 등)에 속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unschooled, ordinary men)으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함'(ordinariness)은 하나님의 '비범함'(extraordinariness)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능력과 영광과 축복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내어 맡기고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All twelve disciples of Jesus were ordinary people. Peter, Andrew, James, and John were all fishermen in Galilee. Levi (Matthew) was a tax collector and the target of people's hatred. But nothing in particular is known about Philip, Bartholomew, Thomas, James the son of Alpha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the son of James. Unfortunately Judas Iscariot became blind out of greed and betrayed Jesus (Later Judas Iscariot committed suicide and was replaced by Matthias as the twelfth disciple. Acts 1:26) None among the twelve was a so-called leader (teachers, priests, elders, etc.). Acts 4:13 states, "When they saw the courage of Peter and John and realized that they were unschooled, ordinary men, they were astonished and they took note."

But God accomplished astonishing things through these disciples. God always calls ordinary people and accomplishes extraordinary things. That is because our "ordinariness" is good enough as a tunnel to reveal the "extraordinariness" of God. Therefore God's calling is never empty. Rather it is a calling of power, glory, and blessing. In receipt of that calling, there is no excuse. Those called by God should release all their weaknesses to the able hands of God and only obe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7

December 화 Tue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God of Life,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7:11-17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1-10절), 그 후 나인 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11-17절). 이 소문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고(18-23절)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며 장터의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셨다(24-35절). 그 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함께 식사하던 바리새인에게 빚을 탕감 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다(36-50절).

누가복음 7장

1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2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
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3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
달라고 하였다.

4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
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
어주었습니다" 하였다.

6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
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
니다.

7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
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8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
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
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Reading insight

Jesus healed the servant of a Centurion of the Roman army in Capernaum (7:1–10), then He raised the dead son of a widow in Nain (7:11–17). Upon hearing this message, when John the Baptist sent a message asking if Jesus was the Messiah they were waiting for, Jesus declared that He was the Messiah (7:18–23). As Jesus explained about the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he told the parable of children in the marketplace (7:24–35). Then as one of the Pharisees invited Jesus to have dinner with him, a woman came to Jesus and poured perfume on his feet. Jesus praised her faith, and told the Pharisee who had dinner with him the parable of the cancellation of debts for two people (7:36–50).

Luke 7

1 After he had finished all his sayings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he entered Capernaum.

2 Now a centurion had a servant who was sick and at the
point of death, who was highly valued by him.

3 When the centurion heard about Jesus, he sent to him el-
ders of the Jews, asking him to come and heal his servant.

4 And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with him ear-
nestly, saying, "He is worthy to have you do this for him,

5 for he loves our nation, and he is the one who built us our
synagogue."

6 And Jesus went with them. When he was not far from the
house, the centurion sent friends, saying to him, "Lord, do
not trouble yourself, for I am not worthy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7 Therefore I did not presume to come to you. But say the
word, and let my servant be healed.

8 For I too am a man set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one, 'Go,' and he goes; and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9 When Jesus heard these things, he marveled at him, and
turning to the crowd that followed him, said, "I tell you, not
even in Israel have I found such faith."

Bible Clip

눅 LUK 7:2

백부장 (centurion, 百夫長)

50~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를 말한다.

Memo

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11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12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13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14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16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

17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19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게 하였다.

20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21 그 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22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23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24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Bible Clip

눅 LUK 7:14

관 (bier, 棺)

여기서는 시신을 무덤까지 운반하는 상여를 말한다. 뚜껑이 없으며 매장시에는 시신만 꺼내 무덤에 넣었다.

10 And when those who had been sent returned to the house, they found the servant well.

11 Soon afterward he went to a town called Nain, and his disciples and a great crowd went with him.

12 As he drew near to the gate of the town, behold, a man who had died was being carried out, the only son of his mother, and she was a widow, and a considerable crowd from the town was with her.

13 And when the Lord saw her, he had compassion on her and said to her, "Do not weep."

14 Then he came up and touched the bier, and the bearers stood still. And he said, "Young man, I say to you, arise."

15 And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speak, and Jesus gave him to his mother.

16 Fear seized them all, and they glorified God, saying, "A great prophet has arisen among us!" and "God has visited his people!"

17 And this report about him spread through the whole of Judea and all the surrounding country.

18 The disciples of John reported all these things to him. And John,

19 calling two of his disciples to him, sent them to the Lord, saying,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20 And when the men had come to him, they said,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saying, 'Are you the one who is to come, or shall we look for another?'"

21 In that hour he healed many people of diseases and plagues and evil spirits, and on many who were blind he bestowed sight.

22 And he answered them, "Go and tell John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the blind receive their sight, the lame walk, lepers are cleansed, and the deaf hear, the dead are raised up, the poor have good news preached to them.

23 And blessed is the one who is not offended by me."

24 When John's messengers had gone, Jesus began to speak to the crowds concerning John: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wilderness to see? A reed shaken by the wind?

Memo

Memo

25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26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27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2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29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옳으심을 드러냈다.

30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31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32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33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34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35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36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37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Memo

25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man dressed in soft clothing? Behold, those who are dressed in splendid clothing and live in luxury are in kings' courts.

26 What then did you go out to see? A prophet? Yes, I tell you, and more than a prophet.

27 This is he of whom it is written,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your face, who will prepare your way before you.'

28 I tell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none is greater than John. Yet the on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God is greater than he."

29 (When all the people heard this, and the tax collectors too, they declared God just,having been baptized with the baptism of John,

30 but the Pharisees and the lawyers rejected the purpose of God for themselves, not having been baptized by him.)

31 "To what then shall I compare the people of this generation, and what are they like?

32 They are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 and calling to one another,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weep.'

33 For John the Baptist has come eating no bread and drinking no wine, and you say, 'He has a demon.'

34 The Son of Man has come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Look at him! A glutto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35 Yet wisdom is justified by all her children."

36 One of the Pharisees asked him to eat with him, and he went into the Pharisee's house and took his place at the table.

37 And behold, a woman of the city, who was a sinner, when she learned that he was reclining at table in the Pharisee's house, brought an alabaster flask of ointment,

38 and standing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the hair of her head and kissed his feet and anointed them with the ointment.

Memo

39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4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41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42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44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45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46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4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48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49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39 Now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have
known who and what sort of woman this is who is touching
him, for she is a sinner."

40 And Jesus answering said to him, "Simon, I have some-
thing to say to you." And he answered, "Say it, Teacher."

41 "A certain moneylender had two debtors. One owed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42 When they could not pay, he cancelled the debt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43 Simon answered, "The one, I suppose, for whom he can-
celled the larger debt." And he said to him, "You have
judged rightly."

44 Then turning toward the woman he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I entered your house; you gave me no
water for my feet, but she has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45 You gave me no kiss, but from the time I came in she has
not ceased to kiss my feet.

46 You did not anoint my head with oil, but she has anointed
my feet with ointment.

47 Therefore I tell you,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
en--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is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48 And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49 Then those who were at table with him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50 And he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나인 성의 아들을 장사 지내는 과부를 보시고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
What did Jesus first say when he saw the widow who was going to bury her dead son in Nain? (7:13)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16절)
When the dead son of the widow in Nain was raised by Jesus, what did the people who witnessed the event exclaim upon proclaiming glory be to God? (7: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두 가지 행렬, 그리고
Two processions, and then

예수님은 나인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가까이에서 장례식 행렬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유일한 의지인 독자를 먼저 떠나보낸 홀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며 주검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자 장례식 행렬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렬이 마주친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과 소망의 행렬입니다.
관 속에 있는 자는 죽음에 의해 망한 자이나, 그 관에 손을 댄 자는 죽음을 멸망시킨 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행렬이 또 하나의 새로운 행렬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환호하는 승리의 축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 역사로써 죽음과 절망은 성 밖으로 나가버렸고, 생명과 소망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의 삯인 사망은 더 이상 그 효력을 잃어버렸고, 죄의 구속으로 인한 영생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Near the gate of the town Nain, Jesus encountered a funeral procession. Sadly it was the funeral procession for the widow's son. We can imagine how sad she was as her only son left her. Knowing her sorrow, Jesus said, "Don't cry," and touched the coffin, the whole procession stopped. As Jesus said,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the dead man sat up and began to talk. Here we see two crowds facing each other. One was death and despair and the other was life and hope.
The one in the coffin was dead one but the one who touched the coffin defeated death. Those two processions created a bigger crowd and became a crowd celebrating the victory and exclaiming, "A big Prophet arose among us! Our LORD took care of His people!" As a new history of the life of Jesus Christ began, death and despair were kicked out of the town, and life and hope were invited into the town. Death as the price of sin no longer had any power, but eternal life as capitulation of sins was given as a gift to all believ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8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The Son of God,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8:40-48

새474장
의원되신 예수님의

통529장
큰 무리 주를 에워싼 중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치유의 이적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이적 이야기들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 권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분의 권위는 자연에 대해서(22-25절), 악한 영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26-39절), 질병에 대해서(40-48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49-56) 강력하게 행사되었다.

누가복음 8장

1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2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4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5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6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 버렸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8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9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1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11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Reading insight

Luke 8 consists of the teachings and sermons of Jesus Christ and the stories of healings and miracles. The stories of the miracles are especially focused on the coming proclaimer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authority of the Son of God, Jesus Christ. His authority was exercised strongly on nature (8:22–25), on the powers of evil spirit (8:26–39), on diseases (8:40–48), and on death (8:49–56).

Luke 8

1 Soon afterward he went on through cities and villages,
proclaiming and bring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twelve were with him,

2 and also some women who had been healed of evil spirits
and infirmities: Mary, called Magdalene, from whom seven
demons had gone out,

3 and Joanna, the wife of Chuza, Herod's household manager, and Susanna, and many others, who provided for them
out of their means.

4 And when a great crowd was gathering and people from
town after town came to him, he said in a parable:

5 "A sower went out to sow his seed. And as he sowed, some
fell along the path and was trampled underfoot, and the
birds of the air devoured it.

6 And some fell on the rock, and as it grew up, it withered
away, because it had no moisture.

7 And some fell among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with
it and choked it.

8 And some fell into good soil and grew and yielded a hundredfold." As he said these things, he called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9 And when his disciples asked him what this parable
meant,

10 he said, "To you it has been given to know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but for others they are in parables, so
that 'seeing they may not see, and hearing they may not understand.'

11 Now the parable is this: The seed is the word of God.

Memo

12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13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14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5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를 맺는 사람들이다."

16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
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17 숨겨 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
타나기 마련이다.

18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
앗길 것이다."

19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20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22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23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
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
은 위태롭게 되었다.

24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
치고 잔잔해졌다.

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26 그들은 갈릴리 맞은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12 The ones along the path are those who have heard;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from their hearts, so that they may not believe and be saved.

13 And the ones on the rock are those who, when they hear the word, receive it with joy. But these have no root; they believe for a while, and in time of testing fall away.

14 And as for what fell among the thorns, they are those who hear,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by the cares and riches and pleasures of life, and their fruit does not mature.

15 As for that in the good soil, they are those who, hearing the word, hold it fast in an honest and good heart, and bear fruit with patience.

16 "No one after lighting a lamp covers it with a jar or puts it under a bed, but puts it on a stand, so that those who enter may see the light.

17 For nothing is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manifest, nor is anything secret that will not be known and come to light.

18 Take care then how you hear, for to the one who has, more will be given, and from the one who has not, even what he thinks t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19 Then his mother and his brothers came to him, but they could not reach him because of the crowd.

20 And he was told,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standing outside, desiring to see you."

21 But he answered them, "My mother and my brothers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do it."

22 One day he got into a boat with his disciples, and he said to them,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set out,

23 and as they sailed he fell asleep. And a windstorm came down on the lake, and they were filling with water and were in danger.

24 And they went and woke him, saying,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And he awoke and rebuked the wind and the raging waves, and they ceased, and there was a calm.

25 He said to them, "Where is your faith?" And they were afraid, and they marveled, saying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he commands even winds and water, and they obey him?"

26 Then they sailed to the country of the Gerasenes, which is opposite Galilee.

Memo

Memo

27 예수께서 뭍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28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
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
시오."

29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
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
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30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
가 있었기 때문이다.

31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
청하였다.

32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
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
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3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
에 알렸다.

35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
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6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37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
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
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
시는데,

38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
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39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
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40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27 When Jesus had stepped out on land, there met him a man
from the city who had demons. For a long time he had worn
no clothes, and he had not lived in a house but among the
tombs.

28 When he saw Jesus, he cried out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said with a loud voice, "What have you to do with me,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 I beg you, do not torment
me."

29 For he had commanded the unclean spirit to come out of
the man. (For many a time it had seized him. He was kept
under guard and bound with chains and shackles, but he
would break the bonds and be driven by the demon into the
desert.)

30 Jesus the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said,
"Legion," for many demons had entered him.

31 And they begged him not to command them to depart into
the abyss.

32 Now a large herd of pigs was feeding there on the hillside,
and they begged him to let them enter these. So he gave
them permission.

33 Then the demons came out of the man and entered the
pigs, and the herd rushed down the steep bank into the lake
and were drowned.

34 When the herdsmen saw what had happened, they fled
and told it in the city and in the country.

35 Then people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they
came to Jesus and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36 And those who had seen it told them how the demon-pos-
sessed man had been healed.

37 Then all the people of the surrounding country of the
Gerasenes asked him to depart from them, for they were
seized with great fear. So he got into the boat and returned.

38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begged that he
might be with him, but Jesus sent him away, saying,

39 "Return to your home, and declare how much God has
done for you." And he went away, proclaiming throughout
the whole city how much Jesus had done for him.

40 Now when Jesus returned, the crowd welcomed him, for
they were all waiting for him.

Memo

Memo

41 그 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42 그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43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44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45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46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47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48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49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50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51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52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53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55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56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41 And there came a man named Jairus, who was a ruler of the synagogue. And falling at Jesus' feet, he implored him to come to his house,

42 for he had an only daughter, about twelve years of age, and she was dying. As Jesus went, the people pressed around him.

43 And there was a woman who had had a discharge of blood for twelve years, and though she had spent all her living on physicians, she could not be healed by anyone.

44 She came up behind him and touched the fringe of his garment, and immediately her discharge of blood ceased.

45 And Jesus said, "Who was it that touched me?" When all denied it, Peter said, "Master, the crowds surround you and are pressing in on you!"

46 But Jesus said, "Someone touched me, for I perceive that power has gone out from me."

47 And when the woman saw that she was not hidden, she came trembling, and falling down before him declared in the presence of all the people why she had touched him, and how she had been immediately healed.

48 And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49 While he was still speaking, someone from the ruler's house came and said, "Your daughter is dead; do not trouble the Teacher any more."

50 But Jesus on hearing this answered him, "Do not fear; only believe, and she will be well."

51 And when he came to the house, he allowed no one to enter with him, except Peter and John and James, and the father and mother of the child.

52 And all were weeping and mourning for her, but he said, "Do not weep, for she is not dead but sleeping."

53 And they laughed at him, knowing that she was dead.

54 But taking her by the hand he called, saying, "Child, arise."

55 And her spirit returned, and she got up at once. And he directed that something should be given her to eat.

56 And her parents were amazed, but he charged them to tell no one what had happen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44절)
What had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done to be healed? (8:44)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8절)
When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told the people that she was healed, what did Jesus tell her? (8:4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터치다운
The Touchdown of God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무리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었는데, 그 즉시 혈루증이 멈추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 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고침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미식축구인 풋볼(football) 경기의 묘미는 뭐니 뭐니해도 '터치다운'(touchdown)에 있습니다. 누군가 철벽같은 수비수들을 뚫고 질주해서 '엔드 존'(end zone)에 터치다운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에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12년 혈루증을 고침 받은 여인도 온갖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가 기어코 예수님께 터치다운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어루만지기(touch) 위해 오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육신'(incarnation)은 하나님의 터치다운(God's touchdown)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터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The woman subject to bleeding for twelve years mobilized all ways and means to treat the illness but to no avail. Having heard that Jesus had healed various illnesses, this woman walked through the crowd, came up behind Jesus, touched the edge of his cloak and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She was sure that her illness would be healed if she could just touch the edge of his cloak. In American football, the most exciting moment is the "touchdown." The crowds ecstatically erupt at the moment when the player runs through powerful defenses and reaches the end zone with the football scoring a touchdown.
The woman subject to twelve years of bleeding ran through all kinds of obstacles and touched down in the end zone where Jesus was. In fact Jesus came to this world from heaven to 'touch" us. Strictly speaking, the "incarnation" was "God's touchdown." God wanted to be like us and he came to this world like us in flesh. We must therefore come nearer to Jesus and touch Jesus. As we reach out to Jesus and touch Him with faith, amazing things will happen to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9

December 목 Thu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The way to follow Jesus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9:57-62

새324장(통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9장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냄 받은 열두 제자와 헤롯의 질문(1-9절); 오천 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10-17절); 예수님은 누구 인가에 대한 질문(18-27절); 변화산 사건(28-36절);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심(37-45절);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언쟁(46-50절);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의 시작(51-56절);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세 사람(57-62절).

누가복음 9장

1 예수께서 그 열둘을 한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2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 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3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
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
거라.
5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
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6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
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7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
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고 하고,
8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
었다.
9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
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1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
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새다라고 하
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11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Reading insight

Luke 9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 the twelve disciples being sent and Herod's questions (9:1–9); the miracle of feeding the crowd of five thousand (9:10–17); the question of who Jesus is (9:18–27);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9:28–36); healing a boy with demons (9:37–45); the argument among the disciples (9:46–50);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to Jerusalem (9:51–56), and three men who want to follow Jesus (9:57–62).

Luke 9

1 And he called the twelve together and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over all demons and to cure diseases,

2 and he sent them out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and
to heal.

3 And he said to them, "Take nothing for your journey, no
staff, nor bag, nor bread, nor money; and do not have two tu-
nics.

4 And whatever house you enter, stay there, and from there
depart.

5 And wherever they do not receive you, when you leave that
town shake off the dust from your feet as a testimony
against them."

6 And they departed and went through the villages, preach-
ing the gospel and healing everywhere.

7 Now Herod the tetrarch heard about all that was happen-
ing, and he was perplexed, because it was said by some that
John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8 by some that Elijah had appeared, and by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old had risen.

9 Herod said, "John I beheaded, but who is this about whom
I hear such things?" And he sought to see him.

10 On their return the apostles told him all that they had do-
ne. And he took them and withdrew apart to a town called
Bethsaida.

11 When the crowds learned it, they followed him, and he
welcomed them and spoke to them of the kingdom of God
and cured those who had need of healing.

Memo

12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입니다."

13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4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16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17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마 16:13-19; 막 8:27-29)

18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21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22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흗날에 살아나야 한다."

23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Bible Clip

눅 LUK 9:20

그리스도 (the Christ of Go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 부른다. 예수께 부여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강조한 성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영어성경 NIV-God's Messiah로 표기되어 있다.

12 Now the day began to wear away, and the twelve came and said to him, “Send the crowd away to go into the surrounding villages and countryside to find lodging and get provisions, for we are here in a desolate place.”

13 But he said to them,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They said, “We have no more than five loaves and two fish--unless we are to go and buy food for all these people.”

14 For there were about five thousand men.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Have them sit down in groups of about fifty each.”

15 And they did so, and had them all sit down.

16 And taking the five loaves and the two fish, he looked up to heaven and said a blessing over them. Then he broke the loaves and gave them to the disciples to set before the crowd.

17 And they all ate and were satisfied. And what was left over was picked up, twelve baskets of broken pieces.

18 Now it happened that as he was praying alone, the disciples were with him. And he asked them, “Who do the crowds say that I am?”

19 And they answered, “John the Baptist. But others say, Elijah, and others, that one of the prophets of old has risen.”

20 Then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And Peter answered, “The Christ of God.”

21 And he strictly charged and commanded them to tell this to no one,

22 saying,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e elders and chief priests and scribes, and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23 And he said to all,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24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save it.

25 For what does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loses or forfeits himself?

Memo

Memo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2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
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28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
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29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30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31 그들은 영광에 싸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
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33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
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
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34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
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
에 사로잡혔다.

35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36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
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
지 않았다.

37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
하였다.

38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
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
입니다.

39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
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
지 않습니다.

40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
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Memo

26 For whoever is ashamed of me and of my words, of him will the Son of Man be ashamed when he comes in his glory and the glory of the Father and of the holy angels.

27 But I tell you truly, there are some standing here who will not taste death until they see the kingdom of God."

28 Now about eight days after these sayings he took with him Peter and John and James and went up on the mountain to pray.

29 And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was altered, and his clothing became dazzling white.

30 And behold, two men were talking with him, Moses and Elijah,

31 who appeared in glory and spoke of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32 Now Peter and those who were with him were heavy with sleep,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who stood with him.

33 And as the men were parting from him, Peter said to Jesus, "Master, it is good that we are here. Let us make three tents, one for you and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not knowing what he said.

34 As he was saying these things, a cloud came and overshadowed them, and they we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loud.

35 And a voice cam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my Chosen One; listen to him!"

36 And when the voice had spoken, Jesus was found alone. And they kept silent and told no one in those days anything of what they had seen.

37 On the next day, when they had come down from the mountain, a great crowd met him.

38 And behold, a man from the crowd cried out,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for he is my only child.

39 And behold, a spirit seizes him, and he suddenly cries out. It convulses him so that he foams at the mouth, and shatters him, and will hardly leave him.

40 And I begged your disciples to cast it out, but they could not."

Memo

4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42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43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4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45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46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47 예수께서 그들 마음 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49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5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51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52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53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54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55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Bible Clip

눅 LUK 9:41

비뚤어진 (perverse)

'배반하다, 거스리다'라는 뜻으로 타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세대에 대한 말씀이다.

눅 LUK 9:52

사마리아 사람 (Samaritans)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 당한 후 강제로 다른 지역에 이주해 살면서 유대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자들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아 적대적 관계가 되었다. 평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겨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 먼 길로 돌아서 갔다.

41 Jesus answered, "O faithless and twisted generation, how long am I to be with you and bear with you? Bring your son here."

42 While he was coming, the demon threw him to the ground and convulsed him. But Jesus rebuked the unclean spirit and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43 And all were astonished at the majesty of God. But while they were all marveling at everything he was doing, Jesus said to his disciples,

44 "Let these words sink into your ears: The Son of Man is about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45 But they did not understand this saying, and it was concealed from them, so that they might not perceive it. And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this saying.

46 An argument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as the greatest.

47 But Jesus, knowing the reasoning of their hearts, took a child and put him by his side

48 and said to them, "Whoever receives this child in my name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him who sent me. For he who is least among you all is the one who is great."

49 John answered, "Master, we saw someone cast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ried to stop him, because he does not follow with us."

50 But Jesus said to him, "Do not stop him, for the one who is not against you is for you."

51 When the days drew near for him to be taken up, he set his face to go to Jerusalem.

52 And he sent messengers ahead of him, who went and entered a village of the Samaritans, to make preparations for him.

53 But the people did not receive him, because his face was set toward Jerusalem.

54 And when his disciples James and John saw it, they said, "Lord, do you want us to tell fire to co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 them?"

55 But he turned and rebuked them.

Memo

Memo

56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7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5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9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
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
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6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
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61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
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
십시오."

62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
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56 And they went on to another village.

57 As they were going along the road, someone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58 And Jesus said to him,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59 To another he said, "Follow me." But he said, "Lord, let me first go and bury my father."

60 And Jesus said to him, "Leave the dead to bury their own dead. But as for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61 Yet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let me first say farewell to those at my home."

62 Jesus said to him,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8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on the road who said,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9:58)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62절)
What did Jesus tell the man who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9:6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 믿으미와 예수 따르미
Those believing Jesus and those following Jesus

본문에는 세 번 연속으로(57절, 59절, 61절) '예수 따름'의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의 요점은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한 마디 명령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명령 속에서, '나를'에 강조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행위, 곧 믿으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명령 속에서, '나를'에가 아니라 '따르라'에 강조점을 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곧 따르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 마디 명령 속에 '인격'(person)이 있고, 동시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필연적으로 가야 할 '행로'(path)가 있습니다. 달콤한 평안이 있고, 동시에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동시에 수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동시에 그 영원한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완벽하게 결정된 현장,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한완상 교수님이 쓴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서, 저자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는 "믿습니다" 를 외치는 예수 신자, 곧 '예수 믿으미'는 많아졌지만, 예수님을 올곧게 따르는 예수 제자, 곧 '예수 따르미'는 적어졌다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은 예수 믿으미인 우리 모두 예수 따르미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입니다.

In today's scripture, Jesus repeats the phrase "follow me" three times in verses 57, 59 and 61. Therefore, the essence of today's scripture is the command of the Lord, "Follow me." But this one command tells us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ing Jesus and following Jesus. In other words, from the command of "follow me," if we place an emphasis on "me," it means to believe Jesus as our Savior, that is, "the believer." But if we place an emphasis on "follow," it means to become "the follower." Within the command of "follow me," there are the traits of the follower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path that all disciples of Jesus must follow. There is sweet comfort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bitter pain. There is glory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shame.
There is Jesus Christ who revealed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Jerusalem, the very place where the suffering and death on the cross of Jesus who himself was the truth of eternal salvation was completely realized. In the book Jesus Church without Jesus by Prof. WanSang Han, the author points out that there are so many Korean churches where we hear the cries of "we believe" but the number of "Jesus followers," the true disciples of Jesus, is diminishing. This Advent season waiting for the birth of Jesus is a good opportunity to renew our faith to convert from believers to followers of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0

December 금 Fri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The master
of my life,
Jesus Chri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0:38-42

새95장(통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70명을 전도자로 세워 파송하셨다(1-16절). 그 후 그들이 돌아와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17-20절), 예수님도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이 받은 복을 말씀하셨다(21-24절). 그런 후,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셨고(25-37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던 중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다(38-42절).

누가복음 10장

1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일흔[두] 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3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4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6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7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8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 주는 음식을 먹어라.

9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10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11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Reading insight

Jesus picked 70 and sent them out as evangelists (10:1–16). When they came back and reported with joy to Jesus (10:17–20), Jesus was also joyful and prayed to God and talked about the blessings the disciples received (10:21–24). Then He told the parable of the Samaritan man to the teacher of the law who tried to test Jesus, and as he continued to walk toward Jerusalem, he visited the house of Martha (10:38–42).

Luke 10

1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seventy-two others and sent
them on ahead of him, two by two, in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himself was about to go.

2 And he said to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
borers are few. Therefore pray earnest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3 Go your way; behold, I am sending you out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

4 Carry no moneybag, no knapsack, no sandals, and greet
no one on the road.

5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

6 And if a son of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upon
him. But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7 And remain in the same house, eating and drinking what
they provide, for the laborer deserves his wages. Do not go
from house to house.

8 Whenever you enter a town and they receive you, eat what
is set before you.

9 Heal the sick in it and say to them,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to you.'

10 But whenever you enter a town and they do not receive
you, go into its streets and say,

11 'Even the dust of your town that clings to our feet we wipe
off against you. Nevertheless know thi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12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town.

Memo

13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14 그러나 심판 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15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16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17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22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13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ghty works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sitting in sackcloth and ashes.

14 But it will be more bearable in the judgment for Tyre and Sidon than for you.

15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exalted to heaven? You shall be brought down to Hades.

16 "The one who hears you hears me, and the one who rejects you rejects me, and the on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17 The seventy-two returned with joy, saying, "Lord, even the demons are subject to us in your name!"

18 And he said to them,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19 Behold,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ead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shall hurt you.

20 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his,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21 In that same hour he rejoiced in the Holy Spirit and said, "I thank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that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understanding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such was your gracious will.

22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and no one knows who the Son is except the Father, or who the Father is except the Son and anyon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23 Then turning to the disciples he said privately, "Blessed are the eyes that see what you see!

24 For I tell you that many prophets and kings desired to see what you see, and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and did not hear it."

25 And behold, a lawyer stood up to put him to the test, saying,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26 He said to him,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o you read it?"

Memo

Memo

27 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2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
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29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
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
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
하여 지나갔다.

33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
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34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
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
아주었다.

35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
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36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
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37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39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
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1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42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
지 못할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10:32

레위 사람 (Levite)

이스라엘 지파들 중 12지파 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위해 성별된 지파이며, 하나님 일에 앞장서도록 요구되었다.

27 And he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your neighbor as your-
self.”

28 And he said to him,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29 But he, desiring to justify himself, said to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30 Jesus replie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he fell among robbers, who stripped him and
beat him and departed, leaving him half dead.

31 Now by chance a priest was going down that road, and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32 So likewise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33 But a Samaritan, as he journeyed, came to where he was,
and 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

34 He went to him and bound up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set him on his own animal and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35 And the next day he took out two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saying, ‘Take care of him, and whatever
more you spend, I will repay you when I come back.’

36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proved to be a neigh-
bor to the man who fell among the robbers?”

37 He said, “The one who showed him mercy.” And Jesus
said to him, “You go, and do likewise.”

38 Now as they went on their way, Jesus entered a village.
And a woman named Martha welcomed him into her house.

39 And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and listened to his teaching.

40 But Martha was distracted with much serving. And she
went up to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
ter has left me to serve alone? Tell her then to help me.”

41 But the Lord answered her, “Martha, Martha, you are
anxious and troubled about many things,

42 but one thing is necessary. Mary has chosen the good por-
tion, which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9절)
As Martha was busy preparing to treat Jesus, what was Martha’s younger sister Mary doing? (10:39)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 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1-42절)
As Martha complained to Jesus about Mary, what did Jesus tell Martha? (10:41-4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지는 것보다 오직 한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참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대상이요, 건축가들에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며, 의사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며, 설교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철학가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질학자들에게 예수님은 만세반석이며, 농부들에게 예수님은 추수의 주님이며, 탕자들에게 예수님은 용서하는 아버지이며,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주린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며, 목마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만을 택하여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Jesus does not appreciate us busying ourselves with many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a simple life. Rather than distracting our minds with thousands or tens of thousands different things, Jesus likes our living focused on only one thing, that is, longing only for Jesus. If we focused our minds only on Jesus like Mary, Jesus would praise us, "You have chosen to be on the good side."
Somebody described Jesus in this way. "To artists, Jesus is totally an object to love, to the architects, Jesus is a cornerstone, to the medical doctors, Jesus is the greatest healer, to the preachers, Jesus is the Word of God, to the philosophers, Jesus is the wisdom of God, to the geologists, Jesus is the solid rock, to the farmers, Jesus is the master of the harvest, to the prodigal people, Jesus is the father of forgiveness, to the lost lambs, Jesus is the good shepherd, to the hungry souls, Jesus is the cake of life, to the thirsty souls, Jesus is the spring water of life, to the people dying, Jesus is the resurrection and life." Jesus alone is the master of our lives.
Therefore people who have chosen one and only one Jesus are as good as those who own everything. Faith is not for this or that, but for only one thing. The object of our focus must be only one thing, that is, only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1

December 토 Sat

기도와 영적인 변혁

The Prayer and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1:5-13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1-13절), 기도를 통해 얻는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다(13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신 후(13-28절), '인자'(人子, The Son of Man)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임을 알리시며(29-32절), 몸의 등불인 눈에 대해 가르치신 후(33-36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호되게 질책하셨다(37-54절).

누가복음 11장

1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4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꾸어 주게.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7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0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11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Reading insight

Jesus taught about prayer (11:1–13) and the good we gain through the prayer is the "Holy Spirit" (11:13). Luke 11 includes Jesus speaking about the history of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and how the devil will be thrown out by the hand of God (11:13–28), announcing that the son of man would be a sign as Jonah was a sign to his generation (11:29–32), teaching about eyes that are the lamplights of our body (11:33–36), and berating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11:37–54).

Luke 11

1 Now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and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2 And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3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4 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ourselves forgive everyone who is indebted to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5 And he said to them, "Which of you who has a friend will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to him, 'Friend, lend me three loaves,

6 for a friend of mine has arrived on a journey,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7 and he will answer from within, 'Do not bother me; the door is now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no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8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ud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whatever he needs.

9 And I tell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10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11 What father among you, if his son asks for a fish, will instead of a fish give him a serpent;

Bible Clip

눅 LUK 11:2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때가 오기를 바라는 간구이다.

Memo

12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4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15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16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 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18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21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22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략한 것을 나누어 준다.

23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24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25 그런데 와서 보니, 집은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26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2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Bible Clip

눅 LUK 11:18

바알세불 (Beelzebub)

악한 영들의 두목으로 '귀신의 왕'(마 9:34)이다.

12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give him a scorpion?

13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14 Now he was casting out a demon that was mute. When the demon had gone out, the mute man spoke, and the people marveled.

15 But some of them said, "He casts out demons by Beelzebul, the prince of demons,"

16 while others, to test him, kept seeking from him a sign from heaven.

17 But he, knowing their thoughts, said to them, "Ever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is laid waste, and a divided household falls.

18 And if Satan also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will his kingdom stand? For you say that I cast out demons by Beelzebul.

19 And if I cast out demons by Beelzebul, by whom do your sons cast them out? Therefore they will be your judges.

20 But if it is by the finger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21 When a strong man, fully armed, guards his own palace, his goods are safe;

22 but when one stronger than he attacks him and overcomes him, he takes away his armor in which he trusted and divides his spoil.

23 Whoever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whoever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24 "When the unclean spirit has gone out of a person, it passes through waterless places seeking rest, and finding none it says, 'I will return to my house from which I came.'

25 And when it comes, it finds the house swept and put in order.

26 Then it goes and brings seven other spirits more evil than itself, and they enter and d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person is worse than the first."

27 As he said these things, a woman in the crowd raised her voice and said to him, "Blessed is the womb that bore you, and the breasts at which you nursed!"

Memo

Memo

28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29 무리가 모여들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31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
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
가 여기에 있다."

33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
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34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36 네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
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네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
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38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39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
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
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0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
하셨느냐?

41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
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42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
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
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Bible Clip

눅 LUK 11:30

니느웨 사람들 (Ninevites)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다(욘 3장).

28 But he said,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keep it!"

29 When the crowds were increasing, he began to say, "This
generation is an evil generation. It seeks for a sign, bu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except the sign of Jonah.

30 For as Jonah became a sign to the people of Nineveh, so
wi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

31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up at the judgment with
the men of this generation and condemn them,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behold,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32 The men of Nineveh will rise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
ing of Jonah, and behold, something greater than Jonah is
here.

33 "No one after lighting a lamp puts it in a cellar or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so that those who enter may see the
light.

34 Your eye is the lamp of your body. When your eye is
healthy, your whole body is full of light, but when it is bad,
your body is full of darkness.

35 Therefore be careful lest the light in you be darkness.

36 If then your whole body is full of light, having no part
dark, it will be wholly bright, as when a lamp with its rays
gives you light."

37 While Jesus was speaking, a Pharisee asked him to dine
with him, so he went in and reclined at table.

38 The Pharisee was astonished to see that he did not first
wash before dinner.

39 And the Lord said to him, "Now you Pharisees cleanse
the outside of the cup and of the dish, but inside you are full
of greed and wickedness.

40 You fools! Did not h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
side also?

41 But give as alms those things that are within, and behold,
everything is clean for you.

42 "But woe to you Pharisees! For you tithe mint and rue and
every herb, and neglect justice and the love of God. These
you ought to have done, without neglecting the others.

Memo

Memo

43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좋아
한다!

44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지를 알지 못한다!"

45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
니다."

4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47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
들의 무덤을 세운다.

48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
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
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
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50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
게 요구할 것이다.

51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
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
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2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53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54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
렸다.

Bible Clip

눅 LUK 11:44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graves which are not seen)

'분명하지 않은', '불분명한'이란 뜻으로, 드러나지 않게 평평하게 처리된 무덤을 뜻한다. 무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중에 밟고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죄악과 위선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평토장한 무덤'은 영어성경 NIV-un-marked graves으로 표기되어 있다.

43 Woe to you Pharisees! For you love the best seat in the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44 Woe to you! For you are like unmarked graves, and people walk over them without knowing it."

45 One of the lawyers answered him, "Teacher, in saying these things you insult us also."

46 And he said, "Woe to you lawyers also! For you load people with burdens hard to bear, and you yourselves do not touch the burdens with one of your fingers.

47 Woe to you! For you build the tombs of the prophets whom your fathers killed.

48 So you are witnesses and you consent to the deeds of your fathers, for they killed them, and you build their tombs.

49 Therefore also the Wisdom of God sai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some of whom they will kill and persecute,'

50 so that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ay be charged against this generation,

51 from the blood of Abel to the blood of Zechariah, who perished between the altar and the sanctuary. Yes, I tell you, it will be required of this generation.

52 Woe to you lawyers! For you have taken away the key of knowledge. You did not enter yourselves, and you hindered those who were entering."

53 As he went away from there,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press him hard and to provoke him to speak about many things,

54 lying in wait for him, to catch him in something he might s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기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무슨 청을 했습니까? (5-6절).
In the parable for prayer, what did the person ask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11:5-6)

다음 구절에서 ( )에 들어갈 말을 적어 넣으십시오: ". . .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 )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Fill in the missing words. Wouldn't your heavenly Father give you ( ) to those who seek it? (11: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당신의 체면 때문에
Because of saving face

본문 8절에 나오는 '간청함, 졸라대는 것'으로 번역된 희랍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anaideia)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례함', '뻔뻔함', '몰염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연성이 적은 '간청함'으로 풀이함으로써, 빵을 구하러 간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졸라 대어 마침내 빵을 얻어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로 얻는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몰염치'라는 본래의 뜻으로 풀이한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친구의 간청을 받아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 사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지 친구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만일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를 매몰차게 빈손으로 돌려보낸다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이 우려되어 친구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강청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본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로서 당신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친구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살아 계신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주는 진정한 기쁨은 반드시 기도 응답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도 응답보다 기도하는 일 그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In Luke 11:8, the word "boldness, importunity" is translated from the Greek word "anaideia". This word originally means "rudeness, effrontery, or impudence." Most people translate this word as "boldness" and interpret the story as having been able to finally secure the bread from his neighbor by not giving up and by asking persistently. Therefore, focus is placed on the answer to "persistent prayer." But if this word was translated as "effrontery" as originally meant, the protagonist of this parable would be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is man's persistent request. In other words, the friend who accommodated the request of the man who visited the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should be given a heavier share of attention, even though he accommodated the request out of fear of shame or blame from neighbors. The accommodation was made not just because the man was his friend but because the friend was afraid of losing face to his neighbors if the persistent request of his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was heartlessly denied.
By the same token, our Lord listens to and answers our prayers out of "saving face" because our Father always faithfully keeps his promises to us and not necessarily because of our persistence. If the worldly friend had answered the wishes of his friend out of desire to save face, how would the living and good God who loves His children turn His face away from the desperate imploration of His children? For the sake of His saving face alone, God would give us something good. What's important is that the real joy of our prayers is not just in the answer to our prayers. We pray because we just love the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when we pray. Therefore, rather than the answer to our prayers, the prayer itself is the grace and the bless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2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2 주일칼럼

빈터, 그 가득한 공간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곽노순 목사님이 쓰신 '그대 삶의 먼동이 트는 날'을 보면 편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빈 공간들이 순서없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종이를 낭비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빈 공간은 그냥 비어있지만 또 어떤 공간에는 한마디씩 적혀있습니다. "백지는 빈 칸이지"로 시작되면서 "백지는 비어 있는 것만은 아니지", "빈 칸은 그득하네"에서 "비어 있는 것은 넘쳐 흐르네"로 끝납니다. 저는 곽목사님이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진 빈 칸에 그리 쓰시고는 그냥 하라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빈 공간'이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비어지게 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배당도 사람들 먹고 사는 삶의 자리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병실은 가득차고 근심과 걱정은 차고 넘칩니다. 삶의 자원이 넉넉한 사람들은 비어있는 시공을 잘 활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고픔과 좌절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비어있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허무가 의미로, 혼돈이 조화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강절 아기 예수 오시는 이 계절, 만삭이 된 여인이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여관이 꽉 채워져있으니 마굿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 것으로 가득 차 하나님 들어 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 방에 오래전 김지하 선생님이 주고 간 '빈터의 바람'이란 글과 함께 난초가 그려

져 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면서 "목사님 계신 곳이 장일순 선생님이 계셨던 강원도 원주가 되기를 빕니다"하셨습니다. 빈터의 바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우리네 삶의 시공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비어있는 것은 비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것으로 채워졌던 것 비어져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곽목사님이 개척하신 샤론교회는 미국교회를 빌려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이 없었는데 아무리 더운 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어디서인지 시원한 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다른 것 안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씩 책만 읽으셨습니다. 심방 이야기하면 "이놈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교인들 다 살피고 있다. 사람의 몸이 분주하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아니다"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목회한다고 여기저기 여러 캠퍼스 다니면 "너는 배운 것이 별로 없으면서 뭘 그리 많이 가르치러 하느냐?"하셨고, 제 열쇠 꾸러미를 보시고는 "깨달음을 얻을수록 열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너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구나" 하셨습니다. 어느날 교인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부르시더니 신문사에 광고를 내라 하십니다. 여쭈었더니 "더 이상 손님 받지 않는다고 광고를 내라"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70명이 넘어가니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마음 먹고 질문 몇 가지 드렸는데 바로 다음 주일 하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 어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시절 지금도 가끔 돌이켜 보면 내 인생 참으로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어있는 현실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강절을 지내면서 지금은 인간의 발버둥으로 애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잘 정돈할 때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 계절 빈 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 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3

December 월 Mon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

The Lord's Words of Warning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2:13-21

새428장(통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누가복음 12장은 주님의 여섯 가지 경고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 (1) 바리새인들의 위선(1-3절); (2)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정한 두려움(4-12절); (3) 물질적 탐욕(13-21절); (4) 생활의 염려(22-34절); (5)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부주의(35-53절); (6) 종말의 때를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성(54-59절).

누가복음 12장

1 그 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
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2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3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
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4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
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 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
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
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7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
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
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9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
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10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
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11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
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
려하지 말아라.

Reading insight

Luke chapter 12 contains six different words of warning from the Lord. 1) Warning against the hypocrisy of the Pharisees (12: 1–3); 2) Warning against being afraid of earthly authorities rather than of God (12: 4–12); 3) Warning against the greed of wealth (12: 13–21); 4) Warning against the worries of life (12:22–34); 5) Warning against not being prepared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12: 35–53); 6) Warning against lacking spiritual discernment to interpret the times (12: 54–59)

Luke 12

1 In the meantime, when so many thousands of the people had gathered together that they were trampling one another, he began to say to his disciples first,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2 Nothing is covered up that will not be reveal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known.

3 Therefore whatever you have said in the dark shall be heard in the light, and what you have whispered in private rooms shall be proclaimed on the housetops.

4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fear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have nothing more that they can do.

5 But I will warn you whom to fear: fear him who, after he has killed, has authority to cast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6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pennies? And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efore God.

7 Why, even the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Fear not; you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

8 "And I tell you, everyone who acknowledges me before men, the Son of Man also will acknowledge before the angels of God,

9 but the one who denies me before men will be denied before the angels of God.

10 And ever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the on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11 And when they bring you before the synagogues and the rulers and the authorities, do not be anxious about how you should defend yourself or what you should say,

Memo

12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13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1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15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
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16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17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
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18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19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20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
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22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
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
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
정하지 말아라.

23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24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25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
인들 늘일 수 있느냐?

26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
을 걱정하느냐?

27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Bible Clip

눅 LUK 12:24

곳간 (storehouse)

여기서는 저장실을 의미한다.

12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in that very hour what you ought to say."

13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14 But he said to him, "Man, who made me a judge or arbitrator over you?"

15 And he said to them, "Take c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covetousness, for one'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16 And he told them a parable, saying, "The land of a rich man produced plentifully,

17 and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for I have nowhere to store my crops?'

18 And he said, 'I will do this: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19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ample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relax, eat, drink, be merry.'

20 But God said to him, 'Fool! This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whose will they be?'

21 So is the one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22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n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put on.

23 For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ing.

24 Consider the ravens: they neither sow nor reap, they have neither storehouse nor barn, and yet God feeds them. Of how much more value are you than the birds!

25 And which of you by being anxious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span of life?

26 If then you are not able to do as small a thing as that, why are you anxious about the rest?

27 Consider the lilies, how they grow: they neither toil nor spin, yet I tell you,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rayed like one of these.

Memo

Memo

28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29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30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31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2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33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34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35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36 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37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38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39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40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3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28 But if God so clothes the grass, which is alive in the field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oven,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29 And do not seek what you are to eat and what you are to
drink, nor be worried.

30 For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seek after these things,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31 Instead,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32 "Fear not, little flock, for it is your Father's good pleasure
to give you the kingdom.

33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needy. Provide
yourselves with moneybags that do not grow old, with a
treasure in the heavens that does not fail, where no thief ap-
proaches and no moth destroys.

34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will your heart be also.

35 "Stay dressed for action and keep your lamps burning,

36 and be like men who are waiting for their master to come
home from the wedding feast, so that they may open the
door to him at once when he comes and knocks.

37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master finds awake
when he comes. Truly, I say to you, he will dress himself for
service and have them recline at table, and he will come and
serve them.

38 If he comes in the second watch, or in the third, and finds
them awake, blessed are those servants!

39 But know this, that if the mast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not have left his
house to be broken into.

40 You also must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41 Peter said, "Lord, are you telling this parable for us or for
all?"

42 And the Lord said,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manager, whom his master will set over his household, to
give them their portion of food at the proper time?

43 Blessed is that servant whom his master will find so doing
when he comes.

44 Truly, I say to you, he will set him over all his posses-
sions.

Memo

Memo

45 그러나 그 종이 마음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46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
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48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
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
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49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50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51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
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
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54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
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
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55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
대로 된다.

56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
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58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
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
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처넣을 것이다.

5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
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12:55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광야로부터 오는 남풍은 건조와 더위를 가져온다.

눅 LUK 12:59

한 푼 (last mite)

로마 화폐 고드란트의 1/2에 해당하는 헬라 화폐 단위이다. 고드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약 1/64이다. 그러므로 한 푼은 하루 품삯의 1/128인 아주 작은 가치를 말한다.

45 But if that servant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delayed
in coming,' and begins to beat the male and female ser-
vants, and to eat and drink and get drunk,

46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does not know, and
will cut him in pieces and put him with the unfaithful.

47 And that servant who knew his master's will but did not
get ready or act according to his will, will receive a severe
beating.

48 But the one who did not know, and did what deserved a
beating, will receive a light beating. Everyone to whom
much was given, of him much will be required, and from
him to whom they entrusted much, they will demand the
more.

49 "I came to cast fire on the earth, and would that it were al-
ready kindled!

50 I have a baptism to be baptized with, and how great is my
distress until it is accomplished!

51 Do you think that I have come to give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rather division.

52 For from now on in one house there will be five divided,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53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
er, mother-in-law against her daughter-in-law and daugh-
ter-in-law against mother-in-law."

54 He also said to the crowds,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you say at once, 'A shower is coming.' And so it
happens.

55 And when you see the south wind blowing, you say,
'There will be scorching heat,' and it happens.

56 You hypocrites!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
ance of earth and sky, but why do you not know how to in-
terpret the present time?

57 "And why do you not judge for yourselves what is right?

58 As you go with your accuser before the magistrate, make
an effort to settle with him on the way, lest he drag you to the
judge, and the judge hand you over to the officer, and the of-
ficer put you in prison.

59 I tell you, you will never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very last penn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께 와서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 달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4-15절).
What did Jesus say to the person who pleaded Jesus to tell his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him? (12:14-15)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가리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
In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God rebuked the wealthy person. Why? (12: 2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내 영혼의 참 만족
The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19절). 영혼은 세상의 쾌락, 일락, 향락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공간은 다름아닌, 영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만족은 결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부요를 누리고 살면서도 도리어 영혼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궁핍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함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등 온갖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일락, 향락은 영혼을 위하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을 파멸의 죽음으로 이끕니다(참고. 딤전 5: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 살 때에 참 만족을 누립니다.

The rich fool had a huge misunderstanding about his soul.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rain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12:19).
God created our soul not for it to be merry in the pleasures of the world but to be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to glorify God who is the creator and master of our soul. The world renown physicist and mathematician Pascal said in his book Pensees,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In other words, true satisfaction of the human soul does not come from the enjoyment of food and other pleasures of this world.
Despite enjoying great material abundance in the world today, many people still continue to live their lives without experiencing true satisfaction of the soul. Feeling unfulfilled in their souls,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struggling with a sense of emptiness, loneliness and even guilt. Their attempts to fill the void inside with things and pleasures of the world only exacerbate their sense of nothingness and death (C.f. 1 Tim 5:6, "Bu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Our souls were made to find satisfaction only when we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live in the grace of the Lor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4

December 화 Tue

길이 참으시는 주님

The Long-Suffering Lor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3:6-9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1-5절). 이 회개의 주제가 무화과나무 비유(6-9절)와 연결되어, 유대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나무의 결실을 소망하셨다. 그 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열여덟 해 동안 귀신들려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유하셨고(10-17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 말씀하셨다(11-21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로의 여정은 계속되었다(22-35절).

누가복음 13장

1 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
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
이라고 생각하느냐?

3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
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
람이라고 생각하느냐?

5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
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6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
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
겠느냐?'

8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
습니다.

9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
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Reading insight

Jesus refers to the people who suffered and died in Galilee and Jerusalem and urges people to repent (13:1–5). This theme of repentance is echoed once again in the parable of a fig tree, in which Jesus warns the people of Israel of God's impending judgment as a fig tree that does not bear fruit will be cut off. After this, on Sabbath day, Jesus heals a woman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18 years (13:10–17), and teaches about the kingdom of God using the metaphor of a mustard seed and yeast (13: 11–21). Jesus continues his journey to Jerusalem (13:22–35).

Luke 13

1 There were some present at that very time who told him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ngled with
their sacrifices.

2 And he answered them, "Do you think that these Galileans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other Galileans, because
they suffered in this way?

3 No, I tell you; but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4 Or those eighteen on whom the tower in Siloam fell and
killed them: do you think that they were worse offenders
than all the others who lived in Jerusalem?

5 No, I tell you; but unless you repent, you will all likewise
perish."

6 And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came seeking fruit on it and found
none.

7 And he said to the vinedresser, 'Look, for three years now
I have come seeking fruit on this fig tree, and I find none.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ground?'

8 And he answered him, 'Sir, let it alone this year also, until I
dig around it and put on manure.

9 Then if it should bear fruit next year, well and good; but if
not, you can cut it down.'"

10 Now he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on the
Sabbath.

Bible Clip

눅 LUK 13:4

실로암 (Siloam)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예루살렘 동남부에 위치한 연못. 예수께서는 소경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여 고쳐주셨다(요 9:7).

Memo

11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12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13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15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19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20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21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22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11 And there was a woman who had had a disabling spirit for eighteen years.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fully straighten herself.

12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over and said to her, "Woman, you are freed from your disability."

13 And he laid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was made straight, and she glorified God.

14 But the ruler of the synagogue, indignant because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said to the people, "There are six days in which work ought to be done. Come on those days and be healed, and not on the Sabbath day."

15 Then the Lord answered him, "You hypocrites! Does no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his ox or his donkey from the manger and lead it away to water it?

16 And ought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bound for eighteen years, be loosed from this bond on the Sabbath day?"

17 As he said these things, all his adversaries were put to shame, and all the people rejoiced at all the glorious things that were done by him.

18 He said therefore,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And to what shall I compare it?

19 It is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that a man took and sowed in his garden, and it grew and became a tree, and the birds of the air made nests in its branches."

20 And again he said, "To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21 It is like leaven that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measures of flour, until it was all leavened."

22 He went on his way through towns and villages, teaching and journeying toward Jerusalem.

23 And someone said to him, "Lord, will those who are saved be few?" And he said to them,

24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For many, I tell you, will seek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25 When once the master of the house has risen and shut the door, and you begin to stand outside and to knock at the door, saying, 'Lord, open to us,' then he will answer you, 'I do not know where you come from.'

Memo

Memo

26 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27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28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29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30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31 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33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35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 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26 Then you will begin to say, ‘We ate and drank in your
presence,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27 But he will say, ‘I tell you, I do not know where you come
from. Depart from me, all you workers of evil!’

28 In that plac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when you see Abraham and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but you yourselves cast out.

29 And people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from north
and south, and recline at table in the kingdom of God.

30 And behold, some are last who will be first, and some are
first who will be last.”

31 At that very hour some Pharisees came and said to him,
“Get away from here, for Herod wants to kill you.”

32 And he said to them, “Go and tell that fox, ‘Behold, I cast
out demons and perform cures today and tomorrow, and the
third day I finish my course.

33 Nevertheless, I must go on my way today and tomorrow
and the day following, for it cannot be that a prophet should
perish away from Jerusalem.’

34 O Jerusalem, Jerusalem, the city that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ose who are sent to it!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brood
under her wings, and you would not!

35 Behold, your house is forsaken. And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본문에서 주인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지 못하자 포도원지기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7절)
What did the man who owns a vineyard say to the man who takes care of the vineyard when he saw that the trees did not bear any fruit? (13:7)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지기는 그에게 무엇이라 응답했습니까? (8-9절)
What did the man who works at the vineyard say to the owner in response? (13:8-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아페스의 주님
Jesus of "A-pes"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유대인 무리들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을 찍어버리라"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찍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파텔, 아페스 아우토이스) 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용서하다'는 뜻의 '아페스'라는 희랍어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지기가 한 말, 곧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8절, 큐리에, 아페스 아우텐)라고 한 간청에서 '내버려두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닥친 그 무자비한 폭력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아페스 기도에 반격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찍어버려야 할 폭력이 포도원지기의 "그대로 두소서"라는 아페스 간청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로 거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죽어 완전히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In Luke chapter 23:34, Jesus offers a prayer of forgiveness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t the foot of the torturous cross, people shouted, "Crucify him!" Put differently, they were shouting "Cut him down!" However, Jesus prayed a prayer of forgiveness for the people who shouted Jesus to be cut down by saying, "Father, forgive them" (Pater, a-pes autois). The Greek word 'a-pes' which means "to forgive" in this prayer is also used in verse 8 of our text today when the worker in the vineyard says to the owner, "Sir,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Kurios, a-pes auten), to mean "leave it alone."
Jesus retaliated the violence of people with a prayer of 'a-pes' as he prayed, "Father, forgive them." Similarly, the violent act of cutting down of the fig tree with an ax was spared by worker's request of 'a-pes' when he pleaded, "Sir, leave it alone." It is important for us to note that, in order for us to bear fruit in our lives, Jesus sacrificed himself on the cross and died for us. By doing so, Jesus became the fertilizer by which we live a fruit-bearing life. Through his sacrifice, he made it possible for us to have the life of resurrec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5

December 수 Wed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

An Invitation to God's Salvation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4:15-24



새518장(통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서두(1-6절)의 안식일 논쟁에서 인간 구원(치유)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한 마디 반문 앞에 적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혼인 잔치의 비유(7-14절)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원리를 가르치셨고, 또한 큰 잔치의 비유(15-24절)에서 당시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복을 대조 시키셨다. 결론 부분(25-3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조건으로 자기부인과 철저한 준비성이 강조되고 있다.

누가복음 14장

1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2 그런데 예수 앞에 수종병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4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5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6 그들은 이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다.

7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8 "네가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9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 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10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Reading insight

In the debate regarding the Sabbath, the opponents of Jesus could not stand against Jesus' teaching that salvation(healing) of human beings must take priority over everything. In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14:7–14) that follows, Jesus teaches about humility. Then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14:15–24), Jesus contrasts the lack of faith in Jews who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Gospel to those who are poor and despised but have accepted the invitation and enjoyed the wonderful blessings of the great banquet. In the concluding part (14:25–35), Jesu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nying one's self and careful planning and preparation.

Luke 14

1 One Sabbath, when he went to dine at the house of a ruler of the Pharisees, they were watching him carefully.

2 And behold, there was a man before him who had dropsy.

3 And Jesus responded to the lawyers and Pharisees, saying,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4 But they remained silent. Then he took him and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5 And he said to them, "Which of you, having a son or an ox that has fallen into a well on a Sabbath day, will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6 And they could not reply to these things.

7 Now he told a parable to those who were invited, when he noticed how they chose the places of honor, saying to them,

8 "When you are invited by someone to a wedding feast, do not sit down in a place of honor, lest someone more distinguished than you be invited by him,

9 and he who invited you both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your place to this person,' and then you will begin with shame to take the lowest place.

10 But when you are invited, go and sit in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your host comes he may say to you, 'Friend, move up higher.' Then you will be honored in the presence of all who sit at table with you.

11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Bible Clip

눅 LUK 14:2

수종병 (dropsy, 水腫病)

고창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헛배가 불러 호흡곤란을 초래하거나, 근육과 혈액 속에 나쁜 물이 고여서 얼굴과 손과 팔, 다리 등이 붓고 살갗이 썩어 가는 증상을 보인다. 당시에는 이런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불치병으로 여겨졌다.

Memo

12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
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
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
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네게 되갚아, 네 은공이 없어질 것
이다.

13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
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14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
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15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
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
이 있습니다."

1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
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7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
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18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19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
하였다.

20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1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
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
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
오너라' 하였다.

22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
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23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
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25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
에게 말씀하셨다.

12 He said also to the man who had invited him, "When you
give a dinner or a banquet, do not invite your friends or your
brothers or your relatives or rich neighbors, lest they also in-
vite you in return and you be repaid.

13 But when you give a feas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14 and you will be blessed, because they cannot repay you.
For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just."

15 When one of those who reclined at table with him heard
these things, he said to him, "Blessed is everyone who will
eat bread in the kingdom of God!"

16 But he said to him, "A man once gave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17 And at the time for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say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18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to
him, 'I have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out and see it.
Please have me excused.'

19 And another said, 'I have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
go to examine them. Please have me excused.'

20 And another said, 'I have married a wife, and therefore I
cannot come.'

21 So the servant came and reported these things to his mas-
ter. Then the mast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said to
his servant, 'Go out quickly to the streets and lanes of the
city, and bring in the poor and crippled and blind and lame.'

22 And the servant said, 'Sir, what you commanded has
been done, and still there is room.'

23 And the master said to the servant, 'Go out to the high-
ways and hedges and compel people to come in, that my
house may be filled.

24 For I tell you,n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shall
taste my banquet.'"

25 Now great crowds accompanied him, and he turned and
said to them,

Memo

Memo

26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
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
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
아야 하지 않겠느냐?

29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
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30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
고 말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 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
느냐?

32 당해 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33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
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4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
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35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26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own father
and mother and wife and children and brothers and sisters,
yes, and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27 Whoever does not bear his own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28 For which of you, desiring to build a tower, does not first
sit down and count the cost, whether he has enough to com-
plete it?

29 Otherwise, when he has laid a foundation and is not able
to finish, all who see it begin to mock him,

30 saying, ‘This man began to build and was not able to fin-
ish.’

31 Or what king, going out to encounter another king in war,
will not sit down first and deliberate whether he is able with
ten thousand to meet him who comes against him with
twenty thousand?

32 And if not, while the other is yet a great way off, he sends
a delegation and asks for terms of peace.

33 So therefore, any one of you who does not renounce all
that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34 “Salt is good, but if salt has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
iness be restored?

35 It is of no use either for the soil or for the manure pile. It is
thrown away.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큰 잔치 비유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 초청을 거부(사양)했습니까? (18-20절)
In the Parable of the Great Banquet, what kind of people rejected the invitation to the banquet? (14: 18-20)

종이 주인에게 “아직도 자리가 비어있다”고 말했을 때 주인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23절)
What did the master commanded the servant to do when he told the master that “There is still room”? (14: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울상 짓는 그리스도인?
A Joyless Christian?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잔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그 노래 가락에 맞춰 추는 춤이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에 도저히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금욕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고난과 절제의 영성을 최고로 생각하여 산이나 광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 안에 은밀한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혼자 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예배당 벽 속에 가두어 자그마한 구멍을 통해 먹을 것을 받아 먹으며 살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의 영성이 탁월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과 희생, 절제와 순종 이런 덕목들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비신앙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잔치의 영성은 곧 기쁨의 영성입니다. 기쁨이 성탄절과 부활절의 주제인 것이 분명하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상 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God is always into throwing a banquet for those who are saved. And in this banquet, there is no shortage of singing and dancing for God. If you are at this banquet, you, too, will not be able to just sit there doing nothing. Christians are those people who have attended this banquet. For this reason, Christians should always be full of joy. How can we not rejoice when our sins have been washed away and we have become God's children by the grace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In church history, there were ascetics and mystics in the Middle Ages who regarded the discipline of suffering and self-denial as the highest form of virtue that they intentionally sought out life in the mountains or wilderness. Some of them made and live their whole life in a tiny prayer room in a monastery or locked themselves up in the church wall, feeding themselves through a small hole in the wall. In a way, this kind of spirituality may seem very deep and holy to some people. But on the other hand, we need to question if this is a spirituality that we need to imitate or practice in our own lives.
Spiritual virtues or disciplines like suffering and sacrifice, self-denial and obedience are certainly virtues that all of us need to pursue. But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eeking joy and pleasure is not wrong as Christians. Spirituality of the banquet is the spirituality of joy. If joy is clearly at the heart of Christmas and Easter celebration, then joy is the essence of our Christian faith. For this reason, there is no such thing as a "joyless Christia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6

December 목 Thu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God who seeks after the Lost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5:11-24

새294장(통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난했다(1-2절). 그러자 예수님은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들, 곧 잃은 양의 비유(3-7절), 잃은 드라크마(은전)의 비유(8-10절), 잃은 아들(탕자)의 비유(11-32절)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잃은 자들을 찾으러 세상에 오셨다.

누가복음 15장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2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구나."

3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5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
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8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
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
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9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말하기를 '나
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1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12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
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Reading insight

When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gathered to hear Jesus,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criticized Jesus for welcoming them (15:1–2). Then Jesus tells them three parables that deal with lost things;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 (15:3–8), the Parable of the Lost Coin (15:8–10) and the Parable of the Lost Son (15:11–32). Jesus the Son of God came to this world to find the lost.

Luke 15

1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drawing near
to hear him.

2 And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grumbled, saying,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3 So he told them this parable:

4 "What man of you, having a hundred sheep, if he has lost
one of them, does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one that is lost, until he finds it?

5 And 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
joicing.

6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saying 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that was lost.'

7 Just so, I tell you,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8 "Or what woman, having ten silver coins, if she loses one
coin, does not light a lamp and sweep the house and seek
diligently until she finds it?

9 And when she has found it, she calls together her friends
and neighbors,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coin that I had lost.'

10 Just so, I tell you, there is joy before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11 And he said,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12 And the younger of them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the share of property that is coming to me.' And he di-
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Bible Clip

눅 LUK 15:8

드라크마 (silver coins)

로마의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헬라의 화폐 단위. 신약 시대에는 1/4세겔의 가치를 가졌으며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었다(마 20:9).

Memo

13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14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15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19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25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26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 보았다.

27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13 Not many days later, the younger son gathered all he had
and took a journey into a far country, and there he squan-
dered his property in reckless living.

14 And when he had spent everything, a severe famine arose
in that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15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one of the citizens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into his fields to feed pigs.

16 And he was longing to be fed with the pods that the pigs
ate, and no one gave him anything.

17 "But when he came to himself,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more than enough bread, but I
perish here with hunger!

18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and I will say to him, "Fa-
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19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Treat me as
one of your hired servants.'"

20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felt compassion, and
ran and embraced him and kissed him.

21 And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before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22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Bring quickly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hoes
on his feet.

23 And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24 For this my son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And they began to celebrate.

25 "Now his older son was in the field, and as he came and
drew near to the house, he heard music and dancing.

26 And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asked what these
things meant.

27 And he said to him, 'Your brother has come, and your fa-
ther has killed the fattened calf, because he has received
him back safe and sound.'

28 But he was angry and refused to go in. His father came
out and entreated him,

Memo

Memo

29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 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
니다.'

31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
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32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29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these many years I
have served you, and I never disobeyed your command, yet
you never gave me a young goat, that I might celebrate with
my friends.

30 But when this son of yours came, who has devou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you killed the fattened calf for
him!’

31 And he said to him, ‘Son, you are always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32 It was fitting to celebrate and be glad, for this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is fou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마저 주는 자가 없자 스스로 돌이켜 한 말은 무엇입니까? (17-19절)
What did the prodigal son say to himself when no one would give him anything to eat, even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15:17-19)

큰 아들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여 준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자 아버지가 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31-32절)
When the older son complained against the father for throwing his brother a banquet, what did the father say to the older son? (15:31-3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버지가 되어야
When You Become a Father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러시아의 어느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려고 가톨릭 교회 성직자이자 하바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이 그 곳에 가서 실물보다 크게 그린 거대한 그 그림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세세한 부분까지 음미하며 묵상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아들을 품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Day Break공동체에서 정신박약 장애우들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 감명을 받고 1992년에 저술한 '탕자의 귀향'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모습을 탕자에서 큰아들의 모습으로 빗대는 순서를 거쳐, 끝내 슬픔과 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헨리 나우웬은 이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들 모두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치유하고, 마침내 잔칫상에 초대한 아버지의 그 두 손(엄밀히, 한 손은 아버지의 강인한 손,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바로 우리의 손이어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그는 "우리가 만일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종착점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며, 진정한 안식처 또한 찾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In a museum in Russia, there hangs a painting by the famous Dutch artist named Rembrandt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One day, a Catholic priest and professor at Harvard University named Henry Nouwen visited the museum to look at the painting. There, he stood in front of the painting for hours, carefully observing every aspect of the painting. He was mesmerized and so moved by the merciful portrayal of the father embracing the prodigal son that he gave up his teaching job and moved into a small community for mentally retarded people in Canada called "Day Break" and spent the rest of his life serving the people there until his death in 1996 by heart attack.
Inspired by Rembrandt's painting, Henry Nouwen wrote a booked entitled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in 1992. In this book, he described himself first identifying with the prodigal son in the story, then with the older son, and finally ending up with hearing the call to be the father who represent grief, forgiveness and the heart of generosity.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Prodigal Son, most people think that returning to the father's house is the ultimate point of the story. But Henry Nouwen argues that there is a bigger point that this story is making. It is the call to be the hands of the father (strictly speaking, one is the strong hand of the father and the other is the gentle hand of the mother) who forgave, healed, accepted and welcomed two sons to the banquet. He concludes that unless we arrive at a place of forgiveness and welcome, we haven't arrived at our final destination in our spiritual journey and that we will not find true sabbath in our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7

December 금 Fri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The life of a wise steward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6:19-31

새95장(통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1-13절)에서 제자들은 의로운 청지기들로서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 들보다 재물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셨다. 아울러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한 쪽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세로 재물을 축적함으로써 돈을 섬기고 있다고 비판한다(14-18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19-31절)에서 가난한 자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부자의 자기만족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다.

누가복음 16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2 그를 불러 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3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4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6 그 사람이 '기름 백 말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쉰 말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7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백 섬이오'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여든 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8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9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Reading insight

In 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 (16:1–13), Jesus taught the disciples to use their wealth wiser than the unrighteous stewards of the world. In addition, Jesus said that the Pharisees who appear to serve God with more religious zeal than others are like those who serve two masters because they serve money by accumulating wealth with their religious authority. (16:14–18) I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16:19–31), Jesus warns of the complacency of the rich who completely ignore the suffering of the poor.

Luke 16

1 He also said to the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 had a manager, and charges were brought to him that this man was wasting his possessions.

2 And he called him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that I hear about you? Turn in the account of your management, for you can no longer be manager.'

3 And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all I do, since my master is taking the management away from me? I am not strong enough to dig, and I am ashamed to beg.

4 I have decided what to do, so that when I am removed from management, people may receive me into their houses.'

5 So, summoning his master's debtors one by one, he said to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6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oil.'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sit down quickly and write fifty.'

7 Then he said to another, 'And how much do you owe?' He said, 'A hundred measures of wheat.' He said to him, 'Take your bill, and write eighty.'

8 The master commended the dishonest manager for his shrewdness. For the sons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

9 And I tell you, make friends for yourselves by means of unrighteous wealth, so that when it fails they may receive you into the eternal dwellings.

Bible Clip

눅 LUK 16:1

청지기 (steward)

가정이나 가정 일에 대한 관리자, 집사, 시종을 의미한다. 여기서 '청지기'는 영어성경 NIV-manager로 표기되어 있다.

눅 LUK 16:6-7

말(measures of oil),
섬(measures of wheat)

'말'은 구약의 '밧'에 해당하는 양으로 약 22ℓ이고, '석'은 구약의 '고르'와 같은 양으로 약 230ℓ이다.

Memo

10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11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12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13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4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15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16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17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18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22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23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Memo

10 "One who is faithful in a very little is also faithful in much, and one who is dishonest in a very little is also dishonest in much.

11 If then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e unrighteous wealth, who will entrust to you the true riches?

12 And if you have not been faithful in that which is another's, who will give you that which is your own?

13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14 The Pharisees, who were lovers of money, heard all these things, and they ridiculed him.

15 And he said to them, "You are those who justify yourselves before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For what is exalted among men is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16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until John; since then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preached, and everyone forces his way into it.

17 But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pass away than for one dot of the Law to become void.

18 "Ever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commits adultery, and he who marries a woman divorced from her husband commits adultery.

19 "There was a rich man who was clothed in purple and fine linen and who feasted sumptuously every day.

20 And at his gate was laid a poor man named Lazarus, covered with sores,

21 who desired to be fed with what fell from the rich man's table. Moreover, even the dogs came and licked his sores.

22 The poor man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to Abraham's side.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23 and in Hades, being in torment,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Abraham far off and Lazarus at his side.

24 And he called out,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to dip the end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in anguish in this flame.'

Memo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 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26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
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28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
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 받는 이 곳에 오지 않게 하
여 주십시오.'

29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
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30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
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
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
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16:29

모세와 예언자들
(Moses and the prophets)

모세는 모세오경을, 예언자는 예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곧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다.

25 But Abraham said, ‘Child, remember that you in your
lifetime received your good things, and Lazarus in like
manner bad things; but now he is comforted here, and you
are in anguish.

26 And besides all this, between us and you a great chasm
has been fixed, in order that those who would pass from
here to you may not be able, and none may cross from there
to us.’

27 And he said, ‘Then I beg you, father, to send him to my fa-
ther’s house--

28 for I have five brothers--so that he may warn them, lest
they also come into this place of torment.’

29 But Abraham said, ‘They have Moses and the Prophets;
let them hear them.’

30 And he said, ‘No, father Abraham, but if someone goes to
them from the dead, they will repent.’

31 He said to him, ‘If they do not hear Moses and the Proph-
ets, neither will they be convinced if someone should rise
from the dea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 각각 어디로 갔습니까? (22–23절)
Where did the beggar Lazarus and the rich man go when they died? (16:22–23)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24절)
What did the rich man say to Abraham when he saw Abraham with Lazarus by his side? (16: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령의 불꽃 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것
Leading to true repentance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살아 있는 형제 다섯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함으로써 그들 모두 자기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31절).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소생) 자체가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조차도 전국적인 회개나, 전세계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끄는 것은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간증도 아닙니다. 비록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자가 지옥의 불 속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의 다섯 형제에게 가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고 끝내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예언자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람을 진정 회개로 이끄십니다.

When the rich man who fell into Hades saw Lazarus entering the kingdom of heaven, he begged Abraham to "send him to the five living brothers to testify, so that they all may not come to such a place of suffering." Then Abraham spoke. "If they do not listen to Moses and the Prophets, they will not be convinced even if someone rises from the dead" (16:31). Therefore, the focus of this parable is tha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does not in itself make a person repent.

Even the resurrection of Jesus did not lead to national or worldwide repentance. It is not miracles, like the resurrection of a dead person, that definitively drives people to repentance.

Nor is it testimony of heaven and hell. Even if Lazarus comes back to life, goes to his five brothers, and shouts fervently about the torment of the rich man in the fires of hell, they still will not believe and will never repent. So, what can lead a person to repentance? It is the Word of the living God. The words of Moses and the prophets are clearly referring to the Word of God. The Word became flesh and came into the world. He is Jesus Christ. In the end, only Jesus Christ can really lead people to repentan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묵상** reading & QT ☐
- **한 말씀** One Word ☐
- **단숨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18

December 토 Sat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A person of faith,
a person of gratitude

묵상본문 Meditation

누가복음 Luke
17:11-19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실족케 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교훈(1-4절)과 더불어 믿음과 종으로 서의 겸손함에 대한 교훈(5-10절)을 주셨다. 그런 후,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을 지나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서 열 명의 나병환자들과 마주쳤을 때, 그들을 고쳐 주셨고(11-19절),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다(20-37절).

누가복음 17장

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2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4 그가 네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5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7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8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9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Reading insight

Jesus gave lessons on temptation and forgiveness of sins (17:1–4) as well as lessons on faith and humility as a servant (17:5–10). Then, as he was passing through the borders of Samaria and Galilee, he encountered ten lepers in a village, where he healed them (17:11–19) and told of what would happen in the end times (17:20–37).

Luke 17

1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Temptations to sin are sure to
come, but woe to the one through whom they come!

2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a millstone were hung around
his neck and he were cast into the sea than that he should
cause one of these little ones to sin.

3 Pay attention to yourselves! If your brother sins, rebuke
him, and if he repents, forgive him,

4 and if he sins against you seven times in the day, and turns
to you seven times, saying, 'I repent,' you must forgive
him."

5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6 And the Lord said, "If you had faith like a grain of mustard
seed, you could say to this mulberry tree, 'Be uprooted and
planted in the sea,' and it would obey you.

7 "Will any one of you who has a servant plowing or keeping
sheep say to him when he has come in from the field, 'Come
at once and recline at table'?

8 Will he not rather say to him, 'Prepare supper for me, and
dress properly, and serve me while I eat and drink, and af-
terward you will eat and drink'?

9 Does he thank the servant because he did what was com-
manded?

10 So you also, when you have done all that you were com-
manded, say, 'We are unworthy servants; we have only do-
ne what was our duty.'"

11 On the way to Jerusalem he was passing along between
Samaria and Galilee.

Memo

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4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
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
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
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
았느냐?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19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
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20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
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
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22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
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23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
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24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
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26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
러할 것이다.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28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
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Bible Clip

눅 LUK 17:26

노아의 시대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타락한 백성들은 결국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멸망 당했다.

12 And as he entered a village, he was met by ten lepers,who stood at a distance

13 and lifted up their voices, saying,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14 When he saw them he said to them, “Go and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And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15 Then one of them,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turned back, praising God with a loud voice;

16 and he fell on his face at Jesus’ feet, giving him thanks. Now he was a Samaritan.

17 Then Jesus answered, “Were not ten cleansed? Where are the nine?

18 Was no one found to return and give praise to God except this foreigner?”

19 And he said to him, “Rise and go your way;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20 Being asked by the Pharisees when the kingdom of God would come, he answered them, “The kingdom of God is not coming with signs to be observed,

21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22 And he said to the disciples, “The days are coming when you will desire to see one of the days of the Son of Man, and you will not see it.

23 And they will say to you, ‘Look, there!’ or ‘Look, here!’ Do not go out or follow them.

24 For as the lightning flashes and lights up the sky from one side to the other, so will the Son of Man be in his day.

25 But first he must suffer many things and be rejected by this generation.

26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will it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27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and marrying and being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when Noah entered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28 Likewise, just as it was in the days of Lot--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buying and selling, planting and building,

Memo

Memo

29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31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32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33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5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 둘 것이다." (36절 없음)

37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Bible Clip

눅 LUK 17:37

주검 (the body)

송장(죽음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주검'은 영어성경 NIV-dead body로 표기되어 있다.

29 but on the day when Lot went out from Sodom, fire and
sulfur rained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30 so will it be on the day when the Son of Man is revealed.

31 On that day, let the one who is on the housetop, with his
goods in the house, not come down to take them away, and
likewise let the one who is in the field not turn back.

32 Remember Lot's wife.

33 Whoever seeks to preser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
er loses his life will keep it.

34 I tell you, in that night there will be two in one be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35 There will be two women grinding together.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37 And they said to him, "Where, Lord?" He said to them,
"Where the corpse is,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무엇이라 소리 높여 외쳤습니까? (13절)
When the ten lepers saw Jesus, they stood far off and cried out to him. What did they shout? (17:13)

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
Hearing their shouts, what did Jesus say to them? (17: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워싱톤감리교회, 이승우(MD)
하늘비전교회, 장재웅(MD)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감사의 자리
The attitude of gratitude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을 고침 받은 열 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특별히 그는 유대인들의 혐오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하나님의 선물(은혜)만 받았지, 실상 그 선물(은혜)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도,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의 차이도, 택함 받은 백성과 멸망 받을 백성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리에 있었는가, 아니면 없었는가에 차이입니다. 그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환자는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15절),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16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나와서 입술로, 재능으로, 물질로, 헌신과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감사의 자리는 은혜를 아는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리입니다. 찬양과 예배로 기쁨을 충만이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 깊은 사랑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Of the ten people who had been cured of leprosy by Jesus, only one person (especially a Samaritan who was hated by the Jews) returned to Jesus and gave thanks. The remaining nine received God's gift (grace), and, in fact, they did not know what the gift (grace) was. Therefor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groups wa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Jews and the Samaritans, no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ean and the unclean, nor the chosen people and the pagan. The difference is whether you have an attitude of gratitude for the grace you received or not. The Samaritan leper, "when he saw that he was healed,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17:15), returned to Jesus and fell at his feet, giving thanks (17:16).
If you have received God's grace, you must give thanks for the grace given. In the past, we too have received countless graces. Even in the midst of a painful pandemic, if we are looking back, we have no choice but to confess that everything is God's grace. But we must examine how grateful we are for the grace we have been given. It is not a true faith if we are just mentally aware of grace. We must come out to give thanks and express our gratitude with our lips, our talents, our material things, our dedication and service. The attitude of gratitude should be in the heart that experienced grace. It is the privilege of salvation through faith. It is a heart full of joy through praise and worship. And it is a devotion that gives deep love to the Lord.